서원향사

書院享祀

소수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書院享祀

JC855

일러두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 · 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소수서원》(2008년), 《도산서원》(2011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 · 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에는 입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분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반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김광선(제례) · 이명진(운영) · 안경희(역사), <도산서원>은 김미영(역사, 제례) · 이명진(운영)이 집필하였습니다.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조사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소수서원 · 도산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서원인 소수서원과 퇴계 학문의 요람인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두 서원은 우리나라 유학 발전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경관과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目次

010 Ⅰ. 소수서원 향사

013 1. 소수서원의 역사

1) 소수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2) 소수서원의 배향인물

045 2. 소수서원의 향사

1) 향알鄕謁

2) 정알正謁

3) 춘추향사례春秋享祀禮

4)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109 3. 소수서원 향사의 특징

1) 도동곡道東曲

2) 홀기와 의례절차

3) 제물과 잔상

117 4. 소수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2) 전승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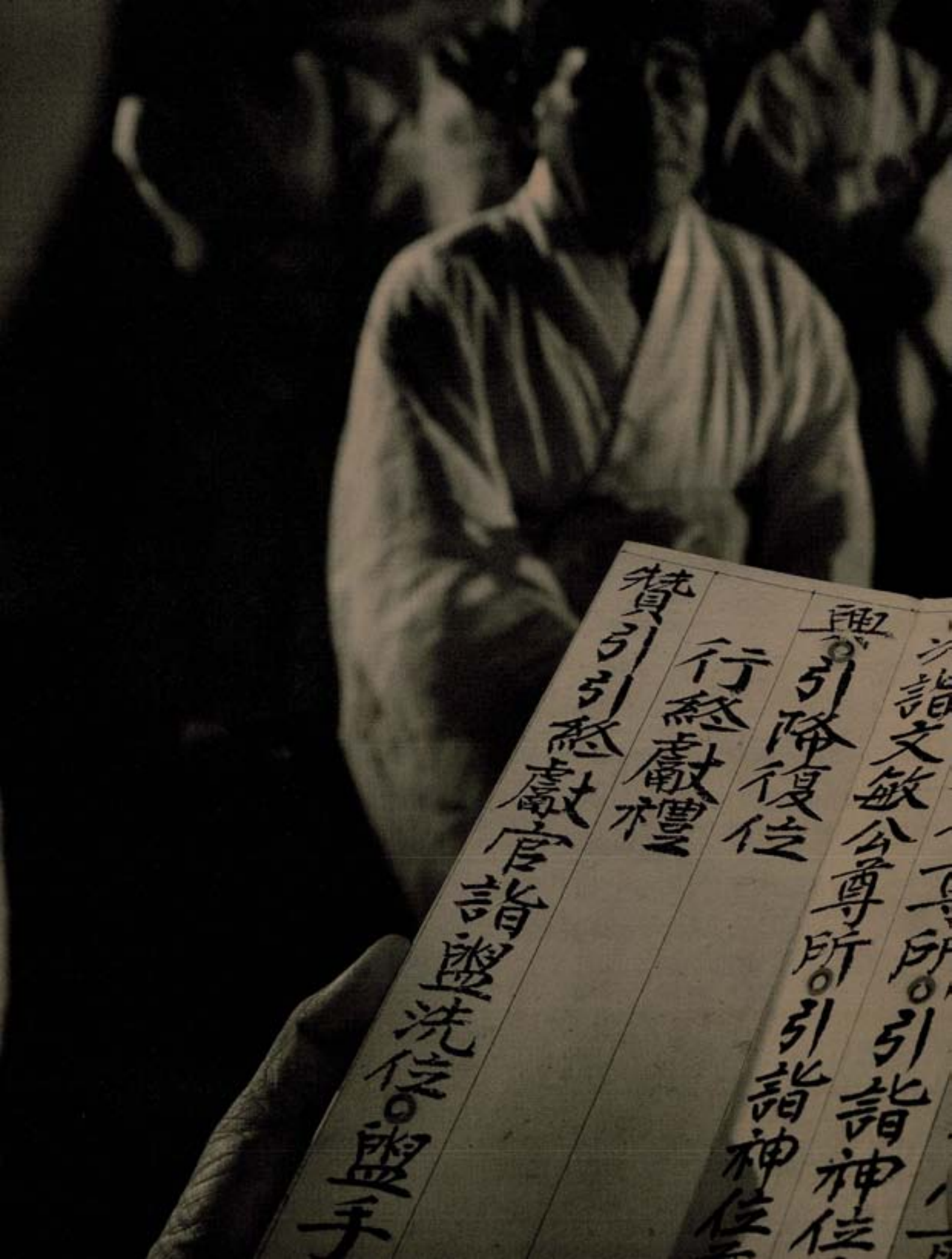
128 소수서원 홀기

目次

322 Ⅲ. 부록

324 1. 소수서원 원규

326 2. 도산서원 원규



興。引降復位
行終獻禮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盥手

I

소수서원 향사

1. 소수서원의 역사

1) 소수서원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1) 역사적 배경

소수서원紹修書院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이며, 최초의 사액賜額[01] 서원이다.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에 보급된 민간사학 교육기관으로 선현先賢의 제향祭享과 유생의 강학講學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향촌에 설립된 사묘祠廟이며, 교육敎育 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운영기구였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래 유학을 정치 및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인재 양성과 교화敎化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통치 이념인 유학을 민간에게 보급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였으며,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국초부터

01 임금이 사림(士林),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學校敎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才"[02]

02 『三峯集』, 卷 7, 朝鮮經國典 上 禮典 學校條

曆者所以明天道之運行定日月之躔度分節候之早晚歲功以之而成庶績以之而熙故聖王重之國家置書雲觀以掌其職其推步望計之術則有授時曆有宣明曆(授授時元世祖時宣明唐穆宗時用)以時考驗國家敬天勤民之意可見矣

經筵

殿下卽位首置經筵官以備顧問常曰大學爲人君主爲世之程眞西山推廣其意作大學衍義帝王爲治之序爲學之本歲以加矣每於聽政之暇或親自觀覽或使人講論雖高宗之時敬成王之日就無足多讓衍歟盛哉

學校

學校敎化之本也于以明人倫于以成人才三代以上其法大備秦漢以下雖不能純然莫不以學校爲重而一時政治之得失係於學校之興廢已然之迹今皆可見矣國家內置成均以敎公卿大夫之子弟及民之俊秀置部學敎授以敎童幼又推其法及於州府郡縣皆有鄉學置敎授生徒曰兵律曰書算曰醫藥曰象譯亦倣置敎授以時講勸其敎之也亦至矣

『三峯集』 朝鮮經國典 上 禮典 學校條

즉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자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기르는 곳이다.' 라고 하여 각 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과 향교를 건립하였다. 그 가운데 성균관은 관료 양성을 위한 국립 최고의 고등 교육 기관이었고 향교는 지방의 대표적인 관학 교육 기관이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교육과 관학적 교육 제도 속에서 지방의 문화는 균일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조선왕조 집권 세력의 노력도 효율적이지 못하여 관학은 점점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향교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극도로 황폐화되어 그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관학적 교육제도들은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점점 국가가 필요로 하였던 교화적 성격보다는 관리 등용의 관문 혹은 과거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예비지식을 습득하는 장소 즉, 관리 양성 기구들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기강의 해이와 과거제도의 문란 등의 사회적 폐단을 불러왔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드러내었고 점차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물론 15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관학의 부진으로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시정책을 강구하거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개 미봉책에 불과하여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더욱이 연산군의 비정[非政] 아래 관학의 쇠퇴는 물론 유풍[儒風]의 붕괴까지 초래하게 되면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반정[反正]으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혼란을 수습하고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황폐해진 교육 시설의 부흥을 위해 학교 교육을 크게 강화하였다. 하지만 공신 계열이 주도한 교학진흥책은 관리등용 기구로서 관학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관학은 더욱 황폐해져 갔다. 이에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사류들은 고식적[姑息的]이고 제도적인 관학 위주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다 근본적인 교학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사림에 의해 생겨난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이었다.

서원은 제향과 강학의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당시 관학[官學]이었던 향교[鄕校]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향교가 제향의 중심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聖賢]이었던 것에 반해 서원은 선현을 제향하였다는 점, 설립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 즉 사림이라는 점, 그리고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 관학과 다르다는 점 등에서 향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한 서원은 1543년(중종 38) 이후 지방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향촌민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국가적인 승인을 받음으로써 점점 관학의 교육적 기능까지 대신하게 되었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였던 주세붕[周世鵬]에 의해 처음으로 경상도 순흥 땅에 소수서원[紹修書院][四]이 창건된 이래, 조선 전 시기를 걸쳐 전국의 각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몇 개씩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또한 조선의 교육사를 통 틀어 서원의 교육을 받은 자의 수나 보급 지역의 범위가 당시의 어떤 교육기관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적어도 조선 중기 이후의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교육시설이었다.

이러한 서원의 시초는 1541년(중종 36) 7월 주세붕이 풍기[豊基]에 군수로 부임한 후 1543년(중종

四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사액 받기 이전에는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고 불렸다.

38)에 평소에 흠모하던 회헌晦軒 안향安珦의 사당을 세우면서 만들어진 소수서원이다. 안향의 연고지인 풍기군은 조선 초 기천현 지역이었으나, 1450년(문종 원년) 속현인 은풍현에 문종의 태를 안치하면서 기천현과 은풍현이 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풍기군으로 승격한 지역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소백산이 국경 역할을 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힘이 부딪히던 곳이었고,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결전을 치루던 지역이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자치에 관한 독특한 정서가 형성되었는데,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탐탁치 않은 지역이었다. 이런 가운데 세조 때 금성대군의 역모 사건까지 겹쳐 순흥은 이데올로기적 교화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졌다.

주세붕은 풍기군에 부임한 즉시 이미 피폐 되어 관학의 기능을 잃어가던 향교를 복구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큰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2년 뒤인 1543년(중종 38)에 경상도 관아, 풍기의 사림, 관속들의 협조를 얻어 향교를 관아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지었다. 동시에 양반들에게 교육 기관으로서 외면당하던 향교를 대신하여 풍기의 사림 및 그들의 자제를 위한 교육 기관인 백운동서원 즉, 소수서원을 건립하게 된다.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1542년(중종 37)에 안향이 어린 시절 노닐면서 공부하였던 옛 숙수사白水寺 자리에 그를 배향하는 회헌사당晦軒祠堂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안향의 영정을 모셔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순흥은 1456년(세조 2) 유배왔던 세종의 다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의 단종 복위 밀모 사건으로 1457년(세조 3)에 순흥부가 폐지되고 순흥향교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시 향교에 봉안되어 있던 안향의 영정이 서울의 대종가로 옮겨 봉안되었는데, 주세붕은 1543년(중종 38)에 사당 동쪽에 학사學舍를 지어 서원의 골격을 갖춘 다음 안향의 영정을 서울의 종가집에서 옮겨와 서원의 사당에 봉안하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이름지었던 것이다.

주세붕이 이렇게 서원을 건립하였던 이유는 풍기지역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말하기를

> "심하도다. 그대의 세상물정에 어두움이여. 향교를 옮긴 것은 그렇다 해도 문성공의 사당과 서원을 세우는 일은 그만둘 수 없었는가? 문성공은 이미 국학國學에 종사 되어 고을마다 사당이 있는데 어찌하여 굳이 사당을 세우며, 이미 학교가 있는데 어찌 꼭 따로 서원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흉년을 당하였으니 그럴 시기가 아니며, 낮은 지위에 있으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사당과 서원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지나친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04]

04 주세붕, 『竹溪志序』

라고 하였다. 즉 안향은 향교에 모셔져 있는데 별도의 사묘가 필요치 않고 향교가 있으니 서원이라는 교육 기관도 필요하지 않으며, 기근에 서원을 세우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었다.[05] 그러나 이에 대해 주세붕은

0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향반』(집문당, 2004), 35쪽

"글쎄. 내가 보건대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을 다스린 1년 사이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중수하였고, 또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사당과 다섯 분 선생의 사당, 그리고 세 분 선생의 사당을 세웠고, 또한 유둔전留屯田을 위하여 장절정壯節亭을 지었다. 그 당시엔 금金나라가 중국을 함락하여 천하가 피비린내로 가득하였고, 남강지방은 계속된 큰 흉년으로 벼슬을 팔아 곡식으로 바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교육이란 반드시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사당을 세워 덕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이니, 실로 교육은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다.……[06]

06 주세붕, 『竹溪志序』

라며 서원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였다. 그는 주자가 남강의 수령으로 있을 때 한 일을 예로 들면서 교화가 기근을 처리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성현을 본받지 않으면 향원의 행적을 따르게 될 것이니 반드시 성현을 본받아 그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풍기군에 중국의 주자가 세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한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고, 고려에 성리학을 도입한 순흥 출신의 안향을 서원에 배향하게 된다. 주세붕이 순흥에 안향을 봉행하는 사묘와 유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서재를 동시에 세운 것은 선현을 존숭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동시에 교육을 통해 유교적 윤리를 가르쳐 풍기 사림들을 교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었다. 다행히 서원의 설립은 주세붕의 의도처럼 풍기 지방의 교화에 영향을 미쳐 유교 윤리가 보급되었기에 이르렀고 향촌민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원생들을 과거에 급제 시키는데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주세붕은 임백령, 이언적 등의 도움을 받아 제향과 교육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서책을 구입하여 서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서원을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세붕 자신도 종종 서원에 들러 고을의 선비들과 어울려 성리학의 강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당시 풍기 사림 모두가 서원 건립에 반대하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주세붕은 그들을 통해 서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기반을 갖추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서원은 풍기 사림의 향촌 교화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였다. 주세붕이 풍기 사람들에게 소수서원의 운영을 맡기고 풍기 사림의 자제들을 원생으로 뽑도록 하였지만 설립 당시 원생 수 10명 가운데 풍기 사람은 1명뿐이었다. 원장을 풍기 사림으로 삼고 실제 사람들을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원생들이 다른 군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소수서원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사림들과 안향의 후손을 제외한 대다수 풍기 사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주세붕에 이어 경상 감사로 부임한 안향의 11대손 안현安玹, 1501~1560이 소수서원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면서 소수서원의 진흥책 역할을 하여, 소수서원은 곧 발전의 계기를 맞게된다. 그는 주로 소수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세붕이 세운 서원의 운영방침을 보완하여 서원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45년(명종 원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안현은 경상도 각 고을에 협조를 요청하여 서원에서 일할 노비와 제수에 쓰일 식량, 어염 등을 확보하고 서원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

서로 분장하여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였다. 또한 서원 운영 규정을 정하고 서원의 원장 임원 문제, 원생의 정원 수, 제향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렇게 토대가 마련된 소수서원은 당시 30결 곧 9만평에 이르는 전답을 보유할 수 있었고, 어장과 염분, 보미寶米도 운영할 수 있었다. 안현의 이러한 노력으로 소수서원은 사액서원으로 인정받을 때 조정으로부터 전례에 의한 서적과 편액은 하사받았으나, 전토와 노비는 새로이 하사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이 튼튼하였다. 그는 서원의 설립자인 주세붕과 서원이 사액받는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이황李滉을 연결하는 중개자이자 소수서원이 사액서원으로 발전하는데 공을 세운 숨은 공로자였다.

안현이 경제적 자립의 발전에 노력하였다면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退溪 이황李滉은 주세붕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원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썼다. 또한 소수서원이 사액을 받음으로 인해 국가의 공인을 받으며 참다운 서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548년(명종 3)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은 소수서원의 격을 높이고 공인화하며, 나라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부임한 이후 다음해인 1549년(명종 4) 당시 경상도 관찰사인 심통원沈通源[07]에게 소수서원이 사림의 교육과 풍속의 교화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이 됨으로 사액서원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07 심통원(149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 청송(靑松)이고 자 사원(士元)이며 호 묵재(默齋)이다. 1537(중종 32)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가 이후 대사헌, 한성부판윤, 공조 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64년(명종 19) 좌의정에 이르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나 이듬해 윤의 위적으로 윤원형尹元衡 등과 관계를 남용하여 뇌물을 받아 삭세드리(삭탈관직)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1567(선조 즉위) 관직이 삭탈되었다.

> "풍기豊基의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은 황해도 관찰사 주세붕周世鵬이 창립한 것인데(주세붕이 풍기 군수豊基郡守로 있을 때 이 서원을 창립하였다.) 그 터는 바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거처하던 이름은 향교이었는데 어쉬御諱를 피하여 유라 하였다.) 살던 곳이고,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주 문공朱文公이 세운 백록동白鹿洴을 모방한 것입니다. 무릇 학령學令을 세우고 서적書籍을 비치하며, 전량田糧과 공급의 도구를 다 갖추어서 인재를 성취시킬 만합니다. 이황李滉이(이황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주세붕의 뜻을 훌륭히 여기고, 오래 전승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연을 갖추어 계문하였기 때문에 삼공과 해조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편액扁額과 서적 토지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2~3건만이라도 특명으로 내려보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고무 감격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주세붕이 마련해준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대로 놓아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창획創獲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환仕宦할 사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생이 글 읽기[讀]는 고요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감사와 수령이 학업을 권장하려고 교령敎令을 번거롭게 내려 단속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장수 유식藏修游息의 도道에 어긋날까 염려되니, 동요시키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08]

08 『명종실록』 권10, 5년 경술(1550) 2월 11일(병오)

라고 의논하여 새로 나타난 교육기관을 높이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생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서적과 함께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을 내려주었다. 소수라는 말은 '자기 대적 수양을 통하여 유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흥에 폐지된 학교를 다시 세워 단절된 도학을 잇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소수서원은 왕명에 의해

「명종실록」 권10, 5년 경술 2월 11일 기사

성리학 교육에 관한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군수나 관찰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액을 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되, 감독은 받지 않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퇴계는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서 서원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서원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이는 수학修學 규칙, 거재居齋 규칙, 교수실천요강, 독서법 등을 규정한 원규院規를 만들어 훗날 세워지는 다른 서원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발전함으로써 백운동서원 시절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

사액 받은 소수서원은 나라의 인정을 받은것으로 서원의 사회적 지위가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원에 딸린 토지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소속 노비들은 면역의 특권이 내려졌다. 또한 처음 입학 정원이 10명이었던 것에 반해 사액 이후에는 30명으로 늘어나며 더욱 발전 할 수 있었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사설교육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허락 받았다. 또한 점차 풍기 사림들이 서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또 하나의 향촌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1575년(선

소수서원紹修書院 편액

조 8)에는 소수서원에서 수학하였던 이황의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기 위해 도산서당에 도산서원을 건립하는 등 점차 그 영역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수서원을 필두로 건립되기 시작한 서원들은 선조대에 이르러 그 건립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지방 관료들도 간섭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이에 효종·인종·대를 거쳐 숙종대에 이르러서는 서원이 점차 정치·사회적 폐해를 드러내게 되었고, 국가에서는 남설濫設과 첨설僭設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드디어 조선말 고종대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부터 1871년(고종 8)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을 통해 47개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원院, 사祠를 훼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수서원은 당시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존속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소수서원은 현재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문화재로 회헌 초상(국보 제111호)과 숙수사지 당간지주(보물 제59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보물 제485호), 주세붕 초상(보물 제717호), 소수서원 문성공묘(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 강학당(보물 제1403호)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인 서총대천림연회도(유형문화재 제238호), 병정 어필 소수서원 현판(유형문화재 제330호), 소수서원 판목(유형문화재 제331호)이 있다. 또한 매년 봄과 가을에 사당에 모셔져 있는 선현 4분을 위한 향사례를 행하고 있다.

(2) 소수서원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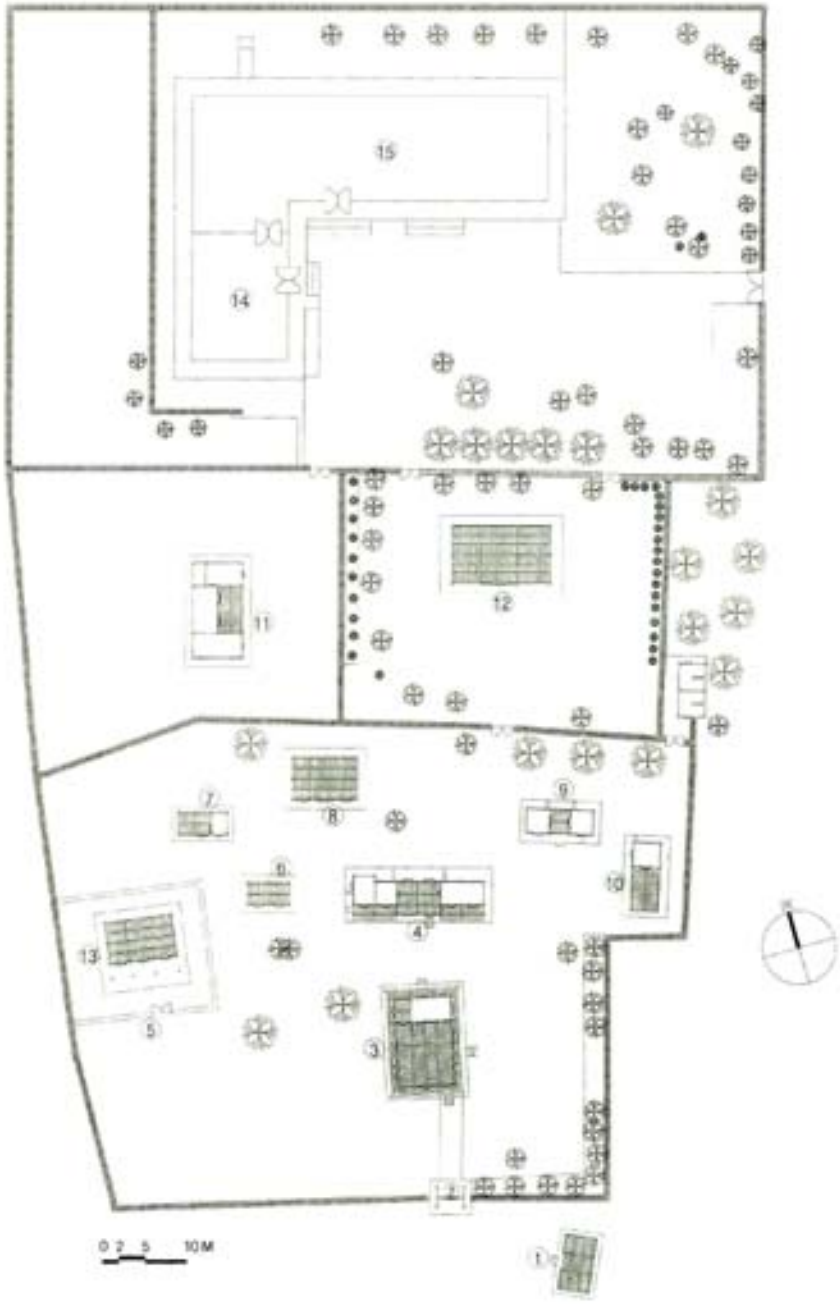
숙수사宿水寺 당간지주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동북쪽 거북 모양의 영귀봉靈龜峰 아래 자리하고 있다. 서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알을 품는 명당 자리로 전해진다. 소수서원은 노송이 울창하게 에워싼 소백산 아래 초암계곡에서 발원한 시냇물이자 태백산의 황지와 함께 1,300리 낙동강의 원류를 이루는 죽계수竹溪水가 감돌아 흘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소수서원에 배향된 안축은 고려말에 「죽계별곡竹溪別曲」이라는 시를 지어 죽령의 남쪽, 영가永嘉 지금의 안동의 북쪽, 소백산 앞에 있는 순흥은 '천년 흥망에도 한결같은 풍류'를 이어 온 고장이라 자랑하며 유학의 전통이 내려온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

몇 백년은 됨직한 소나무가 울타리를 치고 있는 소수서원은 본래 숙수사宿水寺라는 큰 절이 있던 절터였다. 서원 입구에는 아직도 숙수사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높이 약 4m의 당간지주가 서 있으며, 현재는 보물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 건립되었던 숙수사는 통일신라 때 세워진 절로 고려 때까지 크게 융성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쇠퇴를 거듭하다가 그 자리를 소수서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이곳에 부임하였던 주세붕이 목사 안휘安輝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부임한 후 며칠 만에 옛 순흥부에 이르렀는데 한 마리 소가 울고 있는 숙수사 옛터가 있었다. 이곳은 문청공 안축이 「죽계별곡」을 지은 곳으로 마치 신령한 거북이 엎드린 형상의 산 아래 죽계가 있으며, 구름에 감싸인 소백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등 진실로 산수풍광이 백록동서원이 있는 중국 여산廬山에 못지않다. 흰 구름이 항상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감히 이름 하여 백운동이라 하였다. 그리고 감회에 젖어 배회하다가 비로소 사당 건립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하며 서원을 건립하게 된 배경과 서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수서원에 자리한 숙수사 당간지주와 수많은 노송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담장을 둘러친 서원의 정문에 도착하게 된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배치형식에 있어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현재는 크게 3부분으로 공간을 구분한다 서원의 중심인 제향의 공간과 강학의 공간이 자리하고 가운데 부분에 고직사와 유물관이 그리고 제일 뒤쪽에 충효교육관과 순흥문화유적관리소가 자리하고 있다.

소수서원의 정문에 멈추면 그 오른쪽으로 서 있는 경렴정景濂亭이 죽계를 사이에 두고 취한대翠寒臺를 마주보고 서 있다. 이곳은 원생이나 유생들이 자연을 벗 삼아 회합이나 시회를 열어 풍류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던 공간으로 1543년(중종 38) 소수서원이 건립될 당시 함께 지어진 것이다. 보통 다른 서원의 정자들이 서원의 안쪽에 자리하였던 것에 비해 소수서원의 정자인 경렴정은 서원의 밖에 있어 일정한 규칙이 없었던 초기 서원 배치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렴정에는 주세붕, 이황, 황급제黃錦濟, 이준李埈 등 명류들이 남긴 시판들이 걸려 있어 그들의 시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경렴정 밑으로 흐르는 죽계천의 건너편 물가 암벽에는 '경敬'자와 '백운동白雲洞'이라는 두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경자암敬字巖을 볼 수 있는데, '경敬'은 소수서원을 설립한 주세붕의 글씨이며, '백운동白雲洞'은 퇴계 이황이 새긴 글자이다. 주세붕이 새긴 '경敬'은 '경이직내 의이방외敬



소수서원 건물 배치도[09]

09 경상북도, 『豊北書院誌(개정판)』 (2009)

1

2

1. 경렴정
2. 경자암

以直內 義以方外'라는 어구에서 '경敬'자만 나타낸 것으로 '경으로써 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주세붕은 "회헌 선생을 선사로 경모하여 서원을 세우고 후학들에게 선사의 학문을 수계受繼하고자 하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건물이 허물어져 없어지더라도 '경敬'자만은 후세에 길이 전하여 회헌 선생을 선사로 경모하였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하였고, 서원에 들어와 공부하였던 유생들은 이 글자를 보며 마음을 수양하였다.

'경敬'자 위에 새겨진 '백운동白雲洞'은 뒤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백운동白雲洞' 석 자를 음각하고 풍류를 즐긴 것이라고 한다. 또 이황은 송백松柏과 대나무를 심어 취한대翠寒臺라고 이름 붙이고 그 곳에서 경자암을 보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다. 취한대는 연화봉의 기운과 죽계수의 맑고 시원한 물빛에 취해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으로 이름 붙인 것으로 소실되어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86년 근래에 와서 새로 신축하였다. 이렇듯 소수서원을 비롯한 여타 다른 서원들도 주변 풍광이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였는데, 이는 관학인 향교가 읍내나 읍성의 중심에 있던 것과 다른 성향이라고 하겠다.

소수서원의 경내는 대체로 지반이 평탄하고 각 건물의 성격을 반영한 지반의 높고 낮음을 볼 수 없는데, 이는 향교가 경사진 곳에 건물을 지어 명륜당 보다 대성전을 높여 짓던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경내의 건물들도 강학당인 명륜당이 동쪽을 향해 중심부인 정면에 위치해 있고 그 후방에 교무실 겸 사무실 건물인 직방재直方齋와 일신재日新齋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책을 보관하는 장서각藏書閣이 있으며, 반대 방향인 동쪽에는 학구재學求齋와 지락재至樂齋가 있다. 그 뒤 영정각影幀閣을 배치하였는데 이 건물은 1974년에 신축한 건물이다. 명륜당의 북서쪽에는 담장을 둘러서 별도의 공간을 이룬 사당 문성공묘文成公廟와 그 뒤로 전사청이 위치한다. 이렇게 소수서원의 건물 배치 양식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서원들이 보이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배치 양식으로 서원 건축의 전형적인 틀이 형성되기 전에 건립되어졌기 때문이다. 소수서원의 가치는 이러한 초기적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에 있다.

소수서원의 정문에서 보이는 명륜당明倫堂 건물은 '백운동白雲洞'이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소수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유생들이 강의를 듣던 강학당 건물로 대청의 북쪽에 명종이 친필로 써서 사액했다고 전해지는 '소수서원紹修書院'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강학당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3칸의 건물로 내부는 전체적으로 큰 대청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에만 방이 있고 건물 주위로 툇마루가 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중심에 대청을 마련하고 양쪽에 온돌방을 배치하던 강학당의 구조와 달리 소수서원의 강학당은 정면 4칸 중 가운데 3칸에 대청을 만들고 1칸을 온돌방으로 배치한 특징을 보이며, 대청의 문들은 모두 올려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학당 건물의 북쪽에는 지금의 교무실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일신재와 직방재 건물이 있다. 다른 서원들이 강학당의 좌우에 각각 독립된 건물로 동재와 서재가 있었던 반면 소수서원은 일신

소수서원 강학당講學堂

소수서원 강학당

道方齋

직방재直方齋와 일신재日新齋

재와 직방재가 연속된 한 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편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방재의 '직방'은 마음과 행실을 곧고 바르게 닦음을 뜻하고, 일신재의 '일신'은 몸과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함을 뜻하는데, 그 뜻을 모두 『주역周易』에서 취하였다. 일신재는 교수와 유사들의 집무실 겸 숙소였으며, 직방재는 원장의 집무실 겸 숙소였다. 이 두 건물은 좌우 온돌방 정면에 툇간을 두면서 중앙의 마루에 툇간을 두지 않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며 다른 건축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다. 보통 다른 서원들은 이런 기능을 강학당의 온돌방에 이런 기능을 부여하였지만 소수서원은 따로 분리하여 독립된 건물로 구성하였다. 앞의 강학당 건물과 원활 한 동선 연결을 위해 강학당의 온돌방 바로 뒤에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성공묘는 서원 일곽 서쪽 가장 깊고 존엄한 곳에 둘레담으로 별도의 구역을 정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는 회헌 안향를 비롯해 안축, 안보, 주세붕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전면에 툇간을 조성하였다. 첨차 하단의 문양이나 쇠서의 모양으로 미루어 고식 또는 고식을 복원한 양식으로 보인다. 주위에 기와를 얹은 돌담장을 둘렀으며, 정면과 측면에 소박한 일각문을 달아 출입하게 하였다. 둘레담 앞에는 망례위가 조성되어 있다.

현판 글씨는 성균관 명륜당明倫堂현판을 쓴 중국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의 글씨이다. 문성공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당을 사祠라 칭하는 것과 달리 묘廟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 대신들의 논의와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묘는 임금이 인정한 특정한 사당만을 칭하는 것인 만큼 조선시대 수많은 사당들 중에서도 그 격이 특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성공묘와 직방재의 사이에는 장서각이 존재한다. 장서각은 서원의 서적을 보관하던 장소로 가장 좋은 자리에 건립하고자 하여 직방재의 오른쪽에 건립하였다. 이곳에는 임금이 하사한 내사본을 비롯하여 3천여권이 장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장서각의 서북쪽에 위치한 전사청은 봄과 가을 제사가 있는 날에는 제물을 준비하였고 평소에는 제기들을 보관하던 비교적 작은 건물이다. 장서각 뒤로는 영정각이 있으며, 영정각은 서원내 중요한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5년 신축한 복조건축물이다. 회헌 안향의 영정(국보 제111호)과 신재 주세붕의 영정(보물 제717호), 회암 주희, 문충공 오리 이원익, 문익공 한음 이덕형, 문정공 미수 허목의 영정 5점을 봉안하다 현재 원본은 소수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보관하고 대신 복사본을 전시하고 있다.

일신재와 직방재 동북쪽에는 'ㄱ'자 형태의 학구재와 지락재가 자리한다. 이 건물들은 유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공간이다. 남향을 한 학구재는 일명 동몽재童蒙齋라고도 불리며 비교적 낮은 기단위에 세워져 있고, 중앙에 설치된 마루는 앞 · 뒤로 벽이 없이 모두 개방해 놓았다. 지락재는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건물인데 일명 높은 곳을 우러러보는 공간이라 하여 앙고재仰高齋라고도 하였다. 지락재와 학구재는 선생들이 기거하던 일신재와 직방재 건물보다 바닥면의 높이를 낮게, 건물 규모를 작게 조성하여 건물간의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소수서원의 동북쪽에는 탁영대濯纓臺와 탁청지濯淸池가 있으며 이는 1593년(선조 26)에

문성공묘文成公廟

학구재學求齋

지락재至樂齋

탁청지濯淸池

풍기군수로 부임한 류운룡이 문성공묘를 참배한 이후 대를 쌓아 만든 못이라고 한다.

현재 소수서원은 옛 서원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 제향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선의 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특히 관광지로서 많은 성장을 하였는데, 이 결과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소수서원의 서원 경내에 서원 건물 이외에도 고직사와 유물관 그리고 충효교육관과 순흥문화유적관리소가 자리하게 되었다. 소수서원의 경역은 1982년과 1991년 2차례에 걸친 정비사업으로 1982년에는 원래 소수서원 경역 북쪽에 유물관(현재는 사료관)을 건립하였고, 그 서쪽에 서원관리를 위한 고직사를 지어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였다. 1991년에는 유물관의 북쪽에 사료전시관(현 관리사무소)과 충효교육관을 건립하였다. 그 결과 소수서원은 원래의 소수서원 일곽과 유물관 · 고직사 일곽, 그리고 사료전시관 · 충효교육관 일곽 등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졌다.

사료전시관에서는 서원의 양대 기능인 강학과 제향을 주제로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우선 '강학'과 '제향'의 모습을 '디오라마'로 제작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사당에 봉안된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선생에 대한 설명과 서원의 발생, 운영, 교육, 제향, 사회적 기능 등 당시 서원의 역할에 대한 도판을 제작,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서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와 서원 원장 등 각 직책을 맡았던 원임들의 인사기록인 「원임제명록」, 수학한 원생들의 이름을 적은 「입원록」, 서원 방문 인사들의 방명록인 「심원록」 등의 소수서원 관련 유물 16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2) 소수서원의 배향인물

일종의 사립대학이며 유학 경전이라는 전문 분야를 공부했던 서원은 공부하는 곳임과 더불어 선현을 받들어 모시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에 서원을 처음 세웠다고도 할 수 있는 주세붕周世鵬은 "사묘祠廟가 없으면 서원이 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서원의 자격 요건으로 사당을 내세웠다. 물론 서원의 사당에는 아무나 신위를 봉안할 수 없었는데 그 자격 요건은 유학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대유학자이거나 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친 선현들로 그 수도 많아야 10여명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사림들이 특정한 인물을 봉안하고 모셨던 것은 그들의 학덕과 위대한 유훈들을 하나의 모범으로 받들며 후학을 계도하고 학문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학적 정통성을 과시하고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 정통적인 의미를 갖는 소수서원에는 총 네 사람의 위패가 사당에 봉안되어 있다. 중국의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한 회헌 안향(晦軒 安珦)과 그의 재종손으로 고려 충렬왕과 충목왕 때의 학자이자 명신인 안축安軸과 안보安輔, 마지막으로 소수서원을 처음 건립하였던 주세붕周世鵬이 그들이다.

안향은 처음 서원이 건립 될 당시 이미 회헌사당이라고 하여 그를 위한 사당을 짓고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안축과 안보는 1544년(중종 39)에 순흥 출신의 안씨 집안에서 유명한 인물들로 안향의 후손들이라 하여 추가 배향되었다. 또한 주세붕은 1633년(인조 11)에 소수서원을 창건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가장 마지막에 배향되어 현재는 총 네 사람의 위패가 서원의 사당에 봉안되어 있다.

소수서원은 문묘나 서원, 사당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소목식昭穆式의 방법으로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데, 주향이 되는 정위를 묘우의 중앙에 모시고 배향위 또는 종향위는 서열에 따라 좌우에 위패를 교차 배치하는 방식이다. 소수서원은 정위인 안향의 위패를 사당의 중앙에 모시고 좌우에 안축, 안보, 주세붕의 순서로 위패를 모시고 있고 제향을 지낼 때도 이 순서에 따라 지낸다.

(1) 회헌 안향晦軒 安珦

안향安珦, 1243~1306은 고려의 명신이자 학자로 우리나라에 주자 성리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한국 성리학의 시조이다. 어릴 적 이름은 유裕로 뒤에 향珦이라 개명하여 불렸는데, 조선시대 문종文宗의 이름이 같은 자인 향珦이어서 뒤에 다시 유裕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안향의 자는 사온士溫이고 호는 회헌晦軒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그의 호인 회헌은 그가 만년에 송나라 주자朱子를 흠모하여 그를 추모하고자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안향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면인 옛 흥주興州의 죽계竹溪 상평리上平里에서 밀직부사를 지낸 안부安孚[10]와 강주우씨剛州禹氏[11]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고, 아버지 안부가 의업에 종사하였던 영향으로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백

10 순흥안씨 시조 자미子美)의 손자이다. 1244년 문과에 급제하여 첨의대부 밀직부사(正議大夫密直副使)를 지냈으며 판도판서(版圖判書)로 치사하였다. 후에 수태사문하시중(守太師門下侍中)으로 추봉되었다. 묘는 실전하였고, 현재 순흥면 읍내리 추원단(追遠壇)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11 순흥군부인(順興郡夫人) 강주우씨로서 예빈시동정(禮賓寺同正) 우성문(禹成文)의 딸이다.

성들에게 유행하였던 미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미신으로 백성들을 속여 물품을 빼앗는 무당들을 싫어하였다. 그의 이런 모습은 1275년 안향이 상주尙州의 판관判官에 임명되어 부임한 후 미신을 타파하고 백성을 현혹시키는 무당들을 엄중히 다스리는 등 민풍民風을 쇄신하려 노력하였던 행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안향은 126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郎으로 관직에 나아간 이후 1270년 삼별초의 난 때 강화에 억류되었으나, 적의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탈출한 사건으로 원종의 신임을 얻어 1272년에는 감찰어사가 되었다. 그 뒤 판도사좌랑判圖司左郎, 감찰시어사監察侍御史를 거쳐 국자사업國子司業[12]에 올랐고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에서 좌부승지로 옮긴 후 다시 좌승지로서 동지공거同知貢擧[13]가 되었다. 또한 고려는 충렬왕 대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를 고치고 정동행성征東行省[14]을 두게 되었는데 이때 안향이 정동행성의 원외랑員外郎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얼마 뒤에는 좌우사낭중左右司郎中이 되었고 고려유학제거高麗儒學提擧에 이르게 되었다.

안향은 백이정白頤正, 1247-1323[15]과 함께 원나라의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려 문화에 뿌리내리게 하고자 하였던 첫 세대였다. 1289년 안향은 왕과 당시 원나라의 공주이며 고려의 왕후였던 공주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주자의 문집인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 감명을 받아 자신이 손으로 손수 베껴 이듬해 3월에 고려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입된 주자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안향은 주자를 흠모한 나머지 자신의 호를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하여 지을 정도로 주자학에 빠져있었는데, 1297년 왕과 공주를 다시 호종하여 원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공자와 주자의 화상畫像을 그려와 자신의 후원에 정사精舍를 짓고 모시기도 하였다.

1298년 원나라에 의해 충렬왕이 물러나고 충선왕이 즉위하자 관제를 개혁하며 안향을 집현전태학사 겸 참지기무동경유수계림부윤集賢殿大學士兼參知機務東京留守鷄林府尹 뒤이어 다시 첨의참리수문전태학사감수국사僉議參理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에 임명하였다. 이때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들어간 안향은 공자의 문묘를 참배하였는데, 안향이 그곳의 학관들과 문답하는 가운데 주자의 학설에 맞추어 성리학의 이론을 논변하자 학관들은 크게 경탄하며 '동방의 주자'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안향은 고려의 유교적 제도를 정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1303년에는 국학학정國學學正이었던 김문정金文鼎을 중국 강남江南 남경에 보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祭器, 악기樂器 및 육경六經, 제자諸子, 사서史書, 주자서 등을 구해오도록 하였고 1314년에는 박사 유연연을 보내 경전 1만8천권을 사오도록 하였다.

1304년 6월 드디어 국학에 대성전이 완성되자 중국에서 구해온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들의 화상을 모시고 문묘의 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안향은 대성전이 중수될 쯤 국학의 형편을 직정하여 왕에게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6품 이상은 은 1근, 7품 이하는 포布를 내게 하여 이것을 양현고養賢庫에 귀속시키고, 그 인재양성에 충당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안향이 학교를 일으키고 경사를 가르치는데 관심을 갖고 힘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안향은 1306년

12 고려 시대 국학國學인 국자감國子監의 종4품 벼슬이다.

13 고려 시대 과거의 고시관(考試官)으로 지공거와 함께 시험을 관장하였다.

14 고려 충렬왕 때 중국 원나라가 고려의 개경에 둔 관아이다. 원나라의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개경에 정동행중서성이라 하여 설치하였다가 일본 정벌 계획을 그만둔 뒤로는 정동행성이라 고치고, 원나라의 관리를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고 간섭하게 하였다.

15 고려 후기의 학자로 중국 연경燕京(베이징)에서 주자학(朱子學)을 연구하여 한국에 성리학을 전파하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회헌 안향 晦軒 安珦 초상

9월 64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가 남긴 주자학은 고려학계에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백이정, 우탁禹倬, 권보權溥에게 전해진 후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권근權近·김숙자金叔滋·김종직金宗直·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에게 이어져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

안향이 죽은 후 주자학의 도입과 실천에 대한 공적으로 1318년 그의 화상이 모사되었으며, 이것은 1298년 원나라의 학관들이 안향을 '동방의 주자'라 하여 화공에게 그리게 한 것을 모사한 것이다. 또한 이듬해인 1319년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의 문묘, 동무 2위에 배향되었다. 1542년(중종 37)에는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영주군 순흥면 내죽리內竹里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이듬해 8월 송나라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하여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백운동서원이 1549년(명종 4) 풍기군수 이황李滉의 요청에 따라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명종 친필의 사액賜額을 받은 소수서원이다. 이외에도 1643년(인조 21) 장단의 유생들이 봉잠산鳳岑山 아래에 세운 임강서원臨江書院과 곡성의 회헌영당晦軒影堂 등에 제향되었다.

(2) 근재 안축謹齋 安軸

안축安軸, 1282~1348은 고려 말의 문신이자 문인으로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당지當之이며 호는 근재謹齋이다. 순흥의 죽계竹溪 지금의 풍기豊基에서 안석安錫과 안성기安成嘉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형제로 안보安輔와 안집安輯이 있는데 안보는 소수서원에 함께 배향되어 있다. 아버지 안석은 현리縣吏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며 살았다. 안축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하기를 좋아하였으며, 글에 탁월한 재질이 있었다고 한다.

안축은 고향인 죽계에서 세력기반을 다진 후 중앙에 진출한 신흥사대부의 한 사람으로 고려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나아간 이후 금주사록金州司錄, 사헌규정司憲糾正, 단양부주부丹陽府注簿 등의 벼슬을 지냈다. 1324년(충숙왕 11)에는 원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하여 요양로 계주판관遼陽路薊州判官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당시 원나라에 억류되어 있던 충숙왕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상소를 원나라 왕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고려에 돌아와 성균악정成均樂正,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거쳐, 충혜왕 때 왕명으로 강원도존무사江原道存撫使가 되었으며 이때 『관동와주關東瓦注』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그 문집에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사랑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충숙왕이 복직한 후 충혜왕의 총애를 받았다하여 파면 당하였다가 전법판서典法判書로 복직되었으나 당시 실세인 내시의 뜻을 거슬렀다 하여 다시 파면되기도 하였다.

충혜왕이 다시 복위하자 전법판서·감찰대부監察大夫 등에 등용되었다. 안축은 악정樂正[16]으로부터 감찰대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관직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표문表文·전문箋文[17] 등의 문건들이 대부분 그의 손에서 쓰여지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승진하여 교검교평리校檢校評理,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판정치도감사判整治都監事 등의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다. 뒤에 감춘추관사監

16 고려와 조선시대 성균관에 설치되었던 관직으로 품계는 정4품 또는 종4품이며 정원은 1~2명이었다. 음악 이론을 연구하거나 국왕이 친히 제사를 드릴 때 등가(登歌)와 헌가(軒架)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17 임금께 올리던 글이다.

18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충렬왕, 충선왕 때 정치외교가와 문인학자로 활약하였다. 『세대편년절요』, 『본국편년강목』등을 편찬했다.

19 고려시대의 문신 학자이며 당대의 명문장가로 정주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원나라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처사를 배격하는 등의 활약을 하였고 조명부 사체를 도입하여 유행시켰다. 저서는 『효행록』, 『익재집』, 『역옹패설』등이 있다.

春秋館事가 되었는데, 이때 민지閔漬[18]가 지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이제현李齊賢[19] 등과 중수하였고, 또 충렬왕·충선왕·충숙왕 3대의 실록편찬에 참여하여 함께 실록을 수정하였다. 흥녕군興寧君에 봉하여진 4년 후에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나이 62세였다. 소수서원에 배향되었으며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하사 받았다.

그는 문신이었으며 문장가로도 더욱 이름이 높았는데 경기체가인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죽계별곡竹溪別曲』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문집으로 『관동와주關東瓦注』와 저서인 『근재집謹齋集』이 남아 있다.

(3) 안보安輔

안보安輔 1302-1357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지元之이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아버지 안석安碩과 안성기安成奇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형이 고려 후기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안축安軸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형인 안축에게 글을 배워 그의 나이 19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경주사록慶州司錄에 임명되었다. 춘추관수찬春秋館修撰을 거쳐 편수관編修官을 역임하다가 1344년 원나라 제과科科에 합격하여 요양행중서성조마遼陽行中書省照磨로 임명되었고 승발가라고永發加羅庫를 겸임하였다. 이때 안보는 "이미 벼슬을 받은 이상 직무를 보지 않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일이나 지금의 벼슬인 조마照磨의 직책이 문서만 관리할 뿐 다른 사무가 없어 성省으로 가 부임하겠다." 하며 성으로 가 부임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성의 관리들이 그의 재능을 중하게 여기고 모두 대우하였다. 이윽고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였다고 생각한 안보는 어머니를 봉향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벼슬을 버리고 다시 고려로 돌아왔다. 돌아 온 이후에도 양광도안렴사楊廣道按廉使를 거쳐 이듬해 교주도안렴사交州道按廉使를 역임하였고 1352년에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임명되었다. 1355년에는 정당문학政堂文學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는데, 왕은 고향인 흥녕興寧 가까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동경유수東京留守에 제수하기도 하였다. 이후 6년 후인 그의 나이 56세에 세상을 떠났다.

안보는 성질이 강직하고 결백하였다고 전해지며, 『사기史記』와 『한서漢書』 읽기를 즐겼다. 문장은 허식이 없고 실질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고 표현되면 그만이었다. 또 재산 모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가 죽은 후에 집에는 한 섬의 양식도 쌓아 둔 것이 없었다고 전한다. 죽은 이후 그의 문장이나 이런 청렴함을 인정받아 자신의 형인 안축과 함께 1544년(중종 39)에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4) 신재 주세붕 愼齋 周世鵬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상주尙州이고 자는 경유景游이며 호는 신재愼齋, 남고南皐, 무릉도인武陵道人, 손옹巽翁이다. 주세붕은 칠원漆原, 지금의 경남 함안에서 아버지 주문보周文輔와 황근중黃謹中의 딸인 어머니 창원황씨昌原黃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래 주세붕의 집안은 합천陜川에 우거하였으나 아버지인 주문보가 만년에 외가인 칠원으로 이주하면서 칠원에 살기 시작하였다.

주세붕은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인 황씨가 병석에 눕자 직접 목욕시키고 머리를 빗겨주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또한 어릴 때부터 명석하고 총명하여 나이 6세에 이미 『소학小學』을 익혔고 10세에 『사서四書』를 두루 읽을 정도였다.

1522년(중종 17)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면서 벼슬에 나아간 후 승문원 정자正字[20]를 거쳐 예문관 검열檢閱에 선발되었다. 1526년(중종 21)에는 홍문관의 정자正字로 전임되었고 얼마 뒤 저작著作[21]으로 다시 전임되었다가 부수찬副修撰, 공조좌랑工曹佐郎, 병조좌랑兵曹佐郎,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등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김안로金安老가 권력을 좌지우지 하던 1537년(중종 32) 전권을 피하고자 어머니의 봉양을 이유로 외직을 청하여 곤양군수昆陽郡守로 나갔으나 이듬해 겸시관兼試官으로 남행을 한 상관을 비호하였다는 죄목으로 파직 당하였다. 1541년(중종 36)에 다시 관직에 복귀하여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예빈시 정禮賓寺正을 거쳐 그해 여름 풍기군수豐基郡守로 제수되었다.

풍기군수로 재직하게 된 주세붕은 유교 윤리에 입각한 민풍 교화를 전파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다. 마을마다 방을 내려 오륜을 행하는 방도로 『소학小學』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책자로 반포하였고, 당시 피폐하여 향촌민의 교육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향교를 관아 근처로 이전, 복구하였다. 또한 죽계竹溪의 양반들에게 교육기관으로 외면당하던 향교 대신 풍기의 사림과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설 교육기관인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설립하였다. 주세붕은 이 서원에 고려 말 성리학을 도입하였던 순흥 출신의 안향安珦과 안축安軸, 안보安輔를 배향하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이름지었다. 또한 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적을 구입하는 한편, 서원전書院田[22]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백운동서원은 중국의 서원과 같이 사묘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지닌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였으며, 사림을 교육하는 중심 기구로써 향촌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일을 담당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에는 다시 내직으로 돌아왔으며 성균관사성에 임명되었고, 홍문관의 응교 · 전한 · 직제학 · 도승지를 계속하여 역임하고 1548년(명종 3)에는 호조참판이 되었다. 그 이듬해인 1549년(명종 4)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이곳에도 백운동서원의 예와 같이 해주에 수양서원首陽書院을 건립하였다. 그 뒤에도 대사성 ·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하다가 병으로 사직을 요청하여 물러난 후 1554년(명종 9) 향년 60세의 나이로 죽었다. 주세붕은 그의 유언에 따라 고향

20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정9품의 관직으로 전적(典籍)이나 문장의 교정을 맡아보는 문관(文官)이었다.

21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에 두었던 정8품의 관직이다. 국사의 수찬(修撰)을 담당했으며, 홍문관저작은 경연에 참석할 수 있었다.

22 조선시대 서원(書院) 자체(自體)에서 마련한 토지로 면세(免稅)가 되지 않았으며, 소유(所有) 상한(上限)은 3결(結)이었다.

인 칠원 선영에 안장되었고 1633년(인조 11)에 소수서원을 건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또한 양근서원楊根書院과 칠원의 덕연서원德淵書院, 홍주의 문성사文成祠, 칠원의 남고사南皐祠, 함천에 도연사道淵祠에 배향되었다. 1677년(숙종 3)에 예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828년(순조 28)에는 문민文敏이라는 시호를 내려 받았다.

주세붕은 그의 관력에서 보듯이 대체로 학문기관의 관직들을 맡아 일하였고 지방관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교학 진흥을 통한 민풍 교화에 힘써왔다.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을 당시에는 대간에서 학문이 높고 성균관의 사표로 삼을만한 인물이라 하여 내직을 요청할 정도로 그의 학문은 당시 조정에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저서로 『죽계지竹溪志』, 『해동명신언행록海東名臣言行錄』, 『진헌심도進獻心圖』가 전해지며, 문집으로 『무릉잡고武陵雜稿』가 전하는데 이 문집은 아들이 편집하였다가 전란으로 없어질 것을 1859년(철종 10) 후손들이 다시 편집한 것이다. 또한 「도동곡道東曲」, 「육현가六賢歌」, 「엄연곡儼然曲」, 「태평곡太平曲」 등 장가長歌와 「군자가君子歌」 등 단가短歌 8수가 전하고 있다.

신재 주세붕 愼齋 周世鵬 초상

문성공회헌안선생 위패

소수서원 위차도(紹修書院位次圖)

文成公晦軒安先生

文敬公安輔

文貞公安軸

文敬公周世鵬

2. 소수서원의 향사

소수서원의 정기적인 의례는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알묘謁廟하는 향알香謁, 매년 정월 초 5일에 행하는 정알正謁 그리고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丁日에 지내는 춘추 향사로 구분된다.

1) 향알香謁

음력 매월 초하루에 알묘하는 것을 향알 또는 분향례라 한다. 매월 삭망 전날 재유사齋有司는 입원하여 삭망날 이른 아침에 의관(유건과 도포)을 정제하고 봉향, 봉로 한 사람씩을 앞세워 묘정에 나아가 관세위에 손을 씻고 계간에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묘우 안에 들어가 신위를 봉심奉審한다.

2) 정알正謁

매년 정월 초 5일에 알묘하는 것을 정알正謁 또는 정조알묘례正朝謁廟禮라 한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배향 선현께 인사를 드리는 의례로서 삭망 분향례보다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정월 초 4일 원장과 재유사(三任) 및 향중의 여러 유림들이 입원하여 초5일 이른 아침에 행한다. 원장은 당상에서 남향하여 서고, 재유사와 참례자들은 북쪽을 향하여 묘정의 동서에 연치순으로 도열하여 선 뒤 읍례揖禮를 한다. 이를 정읍례揖揖禮라 하며 조사齋司가 재유사 앞에 나아가 읍하고 뵈면, 재유사가 집례를 추천한다. 다시 조사는 알자 앞에 나아가 서로 상읍례를 한 뒤 제자리에 돌아가면 집례가 묘우로 가서 홀기를 창한다. 위차에 따라 예를 마치고 모두가 강당에 돌아와 원장과 연장자들이 동벽에서 서향하여 서고, 집례 이하는 동향 상하로 서서 읍례를 한 뒤 물러난다.

3) 춘추향사례春秋享祀禮

춘추 향사일은 각 서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국학인 성균관과 향교의 문묘 석전일이 종래에 2월과 8월 초정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원에서는 그 이후 중정일이나 하정일 또는 3월과 9월의 정일丁日에 행하게 된다. 소수서원 향사는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에 거행한다. 다만 제일이 국기일과 겹치거나 다른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정일로 미루어 행한다. 2008년 추향은 9월 초정일(양 10. 4) 새벽 0시에 행하였다.

(1) 향사 준비

원장과 각 유사들은 3일 전에 입재하여야 하며 헌관 이하 제집사 및 참례자는 이틀 전에 입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일 입재를 한다. 모든 제관들은 미시未時 : 오후 2시까지 입원하여 시도기時到記에 등재하고 신시申時 : 오후 4시에 입재 알묘를 한다. 제관들은 일단 한번 입재를 하면 파재할 때까지 서원 밖을 나갈 수 없고 원장과 제유사의 지시에 따라 향례에 대한 습의를 한다.

개좌開座

서원의 모든 의식과 절차는 개좌開座로 시작하여 파좌罷座로 끝이 난다. 서원에서의 모든 예절과 회의는 집례의 명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도사령都司令의 "개좌 아뢰오" 삼창으로 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제례의식에 들어간다. 도사령은 옛날에 하인 또는 노복이었지만 지금은 도감이 대신하고 있다. 삼헌관을 비롯하여 축과 집례는 북쪽에서 남향하여 서립하고 동서 양쪽에 제유사와 도감을 선두로 하여 그 아래로 연치 순으로 서로 마주 보며 도열해 선다. 도감이 다시 "상읍례 합시다"하고 외치면 모두 읍을 하며 상견례를 행한 후 착석한다. 도감이 원장 앞에 나아가 입재 인원현황을 보고하고 유고로 부득이 입재하지 못한 헌관을 천망해 줄 것을 계청한다. 원장은 제헌관과 좌중의 의견을 들어 서석호씨를 종헌관으로 선임하고 즉석에서 망기望記를 작성하

1. 시도기時到記 작성
2. 입재入齋

천망薦望

1. 종헌관終獻官 망기望記 작성(서석호)
2. 망기 전달
3. 망기 확인

백운동서원규白雲洞書院規 경독敬讀

여 전달하였다.

경독敬讀

재계의 첫 순서는 경독으로부터 시작된다. 경독은 옛날 서원의 유생들이 심성 함양을 위하여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학의 핵심을 요약한 잠언箴言들을 낭송하던 강회이다. 성독을 잘하는 유생이 앞에 나와서 백록동서원규白鹿洞書院規와 사물잠四勿箴, 경재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차례로 경독하고 제관들은 모두 읍을 하고 서서 경청한다. 백록동원규는 중국 송나라 때 주자가 백록동서원의 문도들에게 교시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향교와 서원 등에서 차용한 학칙과 같은 것이다.

◎ 백운동서원규白雲洞書院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敎之目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우오교지목

堯舜使契爲司徒敬敷五敎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요순사설위사도경부오교즉차시야 학자학차이이 이기소이학지지서

亦有五焉 其別如左

역유오언 기별여좌

博學之 審問之 愼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박학지 심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우위학지서

學問思辨四者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則自修身以至于處事接物

학문사변사자소이궁리야 약부독행지사즉자수신이지우처사접물

亦各有要 其別如左

역각유요 기별여좌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언충신 행독경 징분질욕 천선개과 우수신지요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處事之要

정기의 불모기리 명기도 불계기공 우처사지요

己所不欲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기소불욕물시어인 행유부득 반구저기 우접물지요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위의 글은 다섯 가지 가르침의 조목이다. 요순堯舜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다섯 가지 가르침을 경건히 베풀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이를 배우는 것일 뿐이며, 배우는 순서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구별이 다음과 같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변하고,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 글은 학문을 하는 순서이며,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논변하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방법이다. 독실히 행하는 일에서는 수신修身에서부터 처사處事 · 접물接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조목이 있으니, 그 구별이 다음과 같다.

말은 충신하고 행실은 독실하고 경건해야 한다. 분노를 참고 욕심을 막고, 선한 데로 옮겨가며 허물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는 수신修身의 요점이다.

의를 바로잡고 사욕을 꾀하지 말아야 하며, 도를 밝히고 공로는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처사處事의 요점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며, 행하여 얻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라. 이는 사람을 접할 때의 요점이다.

○ 사물잠四勿箴 - 이천선생伊川先生

顔淵問克己復禮之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안연문극기복례지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四者身之用也 由乎中而應乎外 制於外所以養其中也

사자신지용야 유호중이응호외 제어외소이양기중야

顔淵事斯語所以進於聖人 後之學聖人者宜服膺而勿失也 因箴以自警

안연사사어소이진어성인 후지학성인자의복응이물실야 인잠이자경

안연이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는 조목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하시니, 이 네 가지는 몸의 작용이라 속에서 말미암아 밖으로 응하나니 바깥을 제어하는 것은 그 안을 기르는 방법이다. 안연이 이 말을 섬긴 것은 성인으로 나아가는 까닭이다. 후세에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은 마땅히 가슴속에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시잠視箴

心兮本虛 (심혜본허) 마음이란 본래 허영하여

應物無迹 (응물무적) 사물에 응함에 자취가 없다

操之有要 (조지유요) 붙잡아 간직하는데 요체가 있으니

視爲之則 (시위지칙) 보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니라

蔽交於前 (폐교어전) 눈앞에서 가리게 되면
其中則遷 (기중즉천) 그 속마음이 곧 옮겨가니
制之於外 (제지어외) 밖에서 제어하여
以安其內 (이안기내) 속을 편안케 하라
克己復禮 (극기복례)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여
久而誠矣 (구이성의) 오래 지속하면 참되게 되리라

청잠聽箴

人有秉彝 (인유병이) 사람이 떳떳한 윤리를 가진 것은
本乎天性 (본호천성) 천성에 근본한 것이나
知誘物化 (지유물화) 앎에 이끌리고 외물에 따라 변화되어
遂亡其正 (수망기정) 드디어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린다
卓彼先覺 (탁피선각) 우뚝한 저 선각자는
知止有定 (지지유정) 지선에 머물러 뜻을 정하였으니
閑邪存誠 (한사존성) 사특함을 막고 진실을 보존하여
非禮勿聽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언잠言箴

人心之動 (인심지동)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因言以宣 (인언이선) 말을 통하여 드러나나니
發禁躁妄 (발금조망) 조급하고 망령된 것을 금하여야
內斯靜專 (내사정전) 마음이 조용하고 전일하리라
矧是樞機 (신시추기) 하물며 이것은 몸의 기틀이라서
興戎出好 (흥융출호)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이룬다
吉凶榮辱 (길흉영욕) 길흉과 영욕이
惟其所召 (유기소소) 모두 말이 불러오는 것
傷易則誕 (상이즉탄) 지나치게 쉽게 하면 허탄하고
煩傷則支 (번상즉지) 지나치게 번잡하면 지리하여
己肆物忤 (기사물오) 내가 방자하면 남도 거스르고
出悖來違 (출패내위) 가는 것이 패려하면 오는 것이 어기니
非法不道 (비법부도) 법언(法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欽哉訓辭 (흠재훈사) 성현의 가르침을 공경하라

동잠動箴

哲人知機 (철인지기) 철인은 기미를 알아
誠之於思 (성지어사) 생각을 진실하게 가지고
志士勵行 (지사려행) 지사는 행실을 힘써
守之於爲 (수지어위) 실천하는 데에서 지키나니
順理則裕 (순리즉유) 이치에 순응하면 편안하고
從欲惟危 (종욕유위) 사욕을 쫓으면 오직 위태하다
造次克念 (조차극념) 잠시라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戰兢自持 (전긍자지)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잘 간직하라
習與性成 (습여성성)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으로 이루어져
聖賢同歸 (현성동귀) 성현과 같은 경지에 돌아가리라

◎ 경재잠敬齋箴 - 회암선생晦庵先生

正其衣冠 (정기의관) 의관을 정제하고
尊其瞻視 (존기첨시) 보고 듣는 것을 존엄하게 하고
潛心以居 (잠심이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對越上帝 (대월상제) 상제를 대하듯이 하라

足容必重 (족용필중) 발걸음은 중후하게 하고
手容必恭 (수용필공) 손놀림은 공손하며
擇地而蹈 (택지이도) 길에서는 땅을 가려서 밟아
折旋矩矱 (절선의봉) 개미집이 있으면 돌아서 가라

出門如賓 (출문여빈) 집밖에 나가서는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承事如祭 (승사여제)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제사를 모시듯이 하여
戰戰兢兢 (전전긍긍) 언제나 전전긍긍하여
罔敢或易 (망감혹이)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守口如瓶 (수구여병) 입은 병처럼 닫아 다물고
防意如城 (방의여성) 사사로운 뜻은 성을 쌓듯이 막으라
洞洞屬屬 (동동촉촉) 성실하고 전일(專一)하게 하여
罔敢或輕 (망감혹경) 혹시라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니

不東以西 (부동이서) 동쪽으로 간다고 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고
不南以北 (불남이북) 남쪽으로 간다고 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라

경재잠敬齋箴 경독敬讀

當事而存 (당사이존) 일을 당하여 정성을 다하여
靡他其適 (미타기적) 다른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弗貳以二 (불이이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弗參以三 (불삼이삼) 세 갈래로 갈라지서는 안 되니
惟心惟一 (유심유일) 오직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萬變是監 (만변시감) 만물의 변화를 살펴야 하리라

從事於斯 (종사어사) 여기에 늘 종사하는 것을
是曰持敬 (시왈지경) '경건함을 유지한다(持敬)'라고 하니
動靜弗違 (동정불위) 동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表裏交正 (표리교정) 겉과 속을 바르게 하라

須臾有間 (수유유간) 잠깐 사이라도 틈이 생기면
私欲萬端 (사욕만단) 온갖 욕망이 일어나니
不火而熱 (불화이열) 불이 아니어도 뜨거워지고
不氷而寒 (불빙이한) 얼음처럼 차갑게 되어

毫釐有差 (호리유차) 털끝만큼의 착오에서
天壤易處 (천양역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리라
三綱既淪 (삼강기륜) 삼강의 윤리가 타락하고
九法亦斁 (구법역두) 구법 또한 이지러지니

於乎小子 (오호소자) 소자들이여
念哉敬哉 (염재경재) 생각하고 공경하라
墨卿司戒 (묵경사계) 묵경墨卿이 경계를 맡아
敢告靈臺 (감고영대) 감히 영대靈臺에 고하노라

◎ 심잠心箴 - 범준范浚

茫茫堪輿 (망망감여) 아득한 하늘과 땅
俯仰無垠 (부앙무은)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끝이 없네
人於其間 (인어기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渺然有身 (묘연유신) 작은 몸을 두고 있으니

是身之微 (시신지미) 이 몸의 미미함이란

太倉稊米 (태창제미) 창고의 낟알 정도인데
參爲三才 (삼위삼재) 끼여서 삼재가 됨은
曰有心爾 (왈유심이) 오직 마음 때문이라네

往古來今 (왕고래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孰無此心 (숙무차심) 누구인들 마음이 없었겠는가만
心爲形役 (심위형역) 마음이 형체의 부림을 다하여
乃獸乃禽 (내수내금) 마침내 금수같이 되는 법

惟口耳目 (유구이목) 입과 귀와 눈과
手足動靜 (수족동정) 수족과 동정이
投間抵隙 (투간저극) 틈을 헤집고 파고들어
爲厥心病 (위궐심병) 마음의 병을 만든다네

一心之微 (일심지미) 은미한 마음 하나를
衆欲攻之 (중욕공지) 여러 욕망들이 공격하니
其與存者 (기여존자) 남아 보존되는 것이
嗚呼幾希 (오호기희) 아, 얼마나 되겠는가

君子存誠 (군자존성) 군자는 지성(至誠)을 보존하여
克念克敬 (극념극경) 늘 염려하고 경건하나니
天君泰然 (천군태연) 마음이 태연하면
百體從令 (백체종령) 온 몸이 그 명을 따르리라

◎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 진남당陳南塘

鷄鳴而寤 (계명이오) 닭이 울어 잠을 깨면
思慮潛馳 (사려점치) 생각이 점차 치달리게 되니
孰於其間 (합어기간) 어찌 그 사이에
澹以整之 (담이정지) 조용히 정돈하지 않겠는가

或省舊愆 (혹성구건) 전날의 허물을 반성하기도 하고
或紬新得 (혹주신득) 새로운 이치를 사색하여
次第條理 (차제조리) 차례로 조리를 세우며

瞭然熟識 (요연숙지) 명료하게 속으로 이해하라

本既立矣 (본기입의) 근본이 세워지고 나면
昧爽乃興 (매상내흥) 새벽에 일찍 일어나
盥櫛衣冠 (관즐의관)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추고
端坐斂形 (단좌염형)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은 다음

提撕此心 (제철차심) 이 마음 이끌기를
敬如出日 (교여출일) 솟아오르는 해와 같이 밝게 하라
嚴肅整齊 (엄숙정제) 엄숙히 정제하고
虛明靜一 (허명정일) 마음을 허명정일하게 가지라

乃啓方册 (내계방책) 이때 책을 펼쳐놓고
對越聖賢 (대월성현) 성현들을 대하게 되면
夫子在坐 (부자재좌)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顔曾後先 (안증후선) 안자와 증자가 앞뒤에 있으리라

聖師所言 (성사소언) 성현이 하신 말씀을
親切敬聽 (친절경청) 친절하고 경건하게 듣고
弟子問辨 (제자문변) 제자들의 문변을 가지고
反覆參訂 (반복참정) 반복하여 참고하여 바로 잡으라

事至斯應 (사지사응) 일이 생기면 곧 대응하여
非險于爲 (즉험우위) 행하여 시험하여 보라
明命赫然 (명명혁연) 천명은 밝고 막은 것
常目在之 (상목재지) 항상 눈으로 응시하고

事應既已 (사응기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我則如故 (아즉여고) 자신은 본연으로 돌아가
方寸湛然 (방촌담연)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凝神息慮 (응신식려) 정신을 모으고 잡념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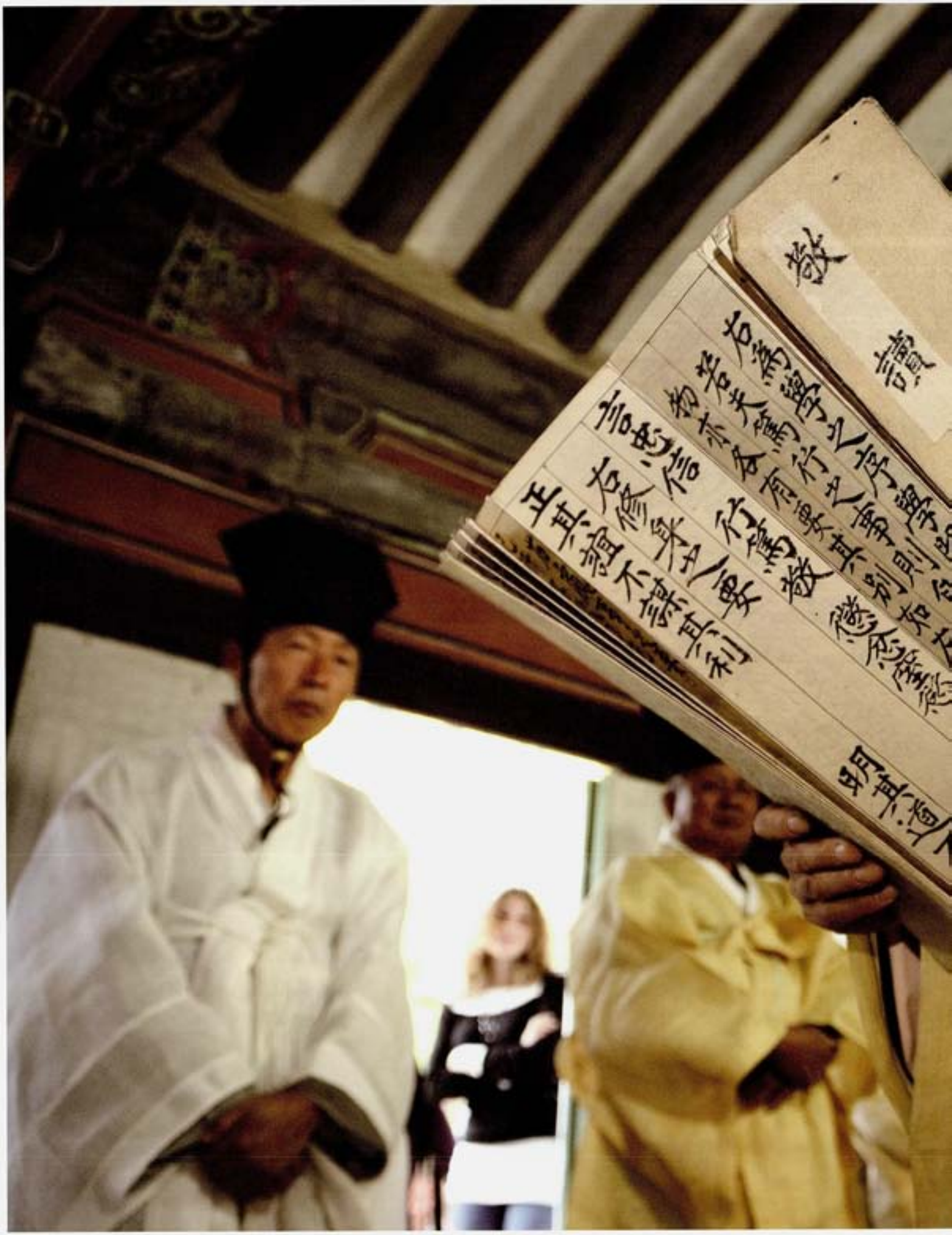
動靜循環 (동정순환) 동정이 순환하는 중에도
惟心是監 (유심시감) 마음만은 이것을 볼 것이니

靜存動察 (정존동찰) 고요할 때 보존하고 움직일 때 살펴
勿貳勿參 (물이물삼) 마음이 두세 갈래로 흩어지지 않게 하리
讀書之餘 (독서지여) 독서하는 여가에
間以游泳 (간이유영) 간간이 음미하여
發舒精神 (발서정신) 정신을 발양하여
休養情性 (휴양정성) 성정을 길러야 한다

日暮人倦 (일모인권) 날이 저물고 권태가 일 때
昏氣易乘 (혼기이승) 혼미한 기운이 쉽게 엄습하니
齋莊正齊 (재장정제) 장중히 가다듬어
振拔精明 (진발정명) 밝은 정신을 떨쳐야 한다

夜久斯寢 (야구사침) 밤이 으슥하여 잠자리에 들되
齊手斂足 (제수염족) 수족을 가지런히 모으고
不作思惟 (부작사유) 잡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心神歸宿 (심신귀숙) 심신이 돌아와 쉬게 하라

養以夜氣 (양이야기) 야기로써 길러 나가
貞則復元 (정즉복원) 바르면 본원을 회복하리라
念玆在玆 (염자재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日夕乾乾 (일석건건) 밤낮으로 쉬지않고 힘쓰라



집사분정執事分定

경독이 끝난 후에 향사에 봉무 할 제집사 분정을 한다. 도감이 강당 정면 벽에 걸려있는 분정판을 내려 헌관 앞에 놓는다. 분정판에는 지난 번 춘향시의 헌관 이하 제집사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다. 분정판은 목판으로 제작되어 있고 매 향사 시마다 한지에 묵서하여 분정판에 전번 것과 교체하여 부착, 다음 향사시까지 게시해 둔다.

도기록을 참조하여 출신 문중과 연령, 학덕과 인품을 고려하여 각 소임의 적임자를 선임하여 분정판에 열기한다. 분정이 완료되면 도감은 분정판을 들고 먼저 초헌관에게 보여드린 후 좌중을 한 바퀴 돌며 분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열람하게 함과 아울러 각자의 소임을 주지시킨 후 다시 원 위치에 게시한다. 이제 이 명단은 6개월 후 다음 향사 시까지 붙어 있게 된다.

戊子九月初六日
文成公秋享時執事

亞獻官 權應鳳
初獻官 金東仁
終獻官 徐錫祜
祝 金炳鍊
贊者 黃永洙
謁者 洪思萬
贊引 徐錫台
司尊 金浩喆
司尊郁 金善
奉爐香 徐錫一
奉爐炭 朴淵化
奉獻爵 安炳佑
奉獻爵 金善愚
奉獻爵 權相泰
奉獻爵 朴變
學生 徐錫永
學生 權鍾
學生 徐三元
學生 安聲
學生 金曙善
學生 金光植
學生 權寧鳳
祭物有司 李甲善
祭物有司 安清夫
祭物有司 黃永滿
祭物有司 安載宣
祭物有司 李弘善
祭物有司 金光昊
祭物有司 周永秀
祭物有司 安泰榮
祭物有司 李文鉉
祭物有司 崔順權
祭物有司 裵善周
祭物有司 徐惠康
祭物有司 梁鎭湖
祭物有司 都盛煥
祭物有司 徐明正
陳設 都司築陳設牲盛
原

집사분정(執事分定)

1
2

1. 분정판
2. 분정기分定記 작성

紹修書院

修書院

제축祭祝

축은 지필묵을 준비하여 초헌관을 모시고 묘우(文成公廟)에 들어가 축문을 써서 축판에 넣어 향안 위에 올려놓는다. 축문은 초헌례 때 정위인 회헌 선생께 향사를 올리게 된 연유를 고하는 것으로 선현과 후학이 제향을 통하여 상호 교감하는 문건이다. 회헌 선생이 처음 주자학을 들여옴으로써 이 땅에 교학진흥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음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維歲次戊子九月壬申朔初六日丁丑
後學 成均館典學 義城金東仁 敢昭告于
先師 文成公晦軒安先生 伏以
尊信斯道 闡敎吾東 功存學校 百世儒宗
玆值上丁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以
文貞公安氏 文敬公安氏 文敏公周氏 配尙
饗

축문

무자년 9월(초하루의 간지는 임신) 초6일(정축일) 후학 성균관 전교 의성 김동인은 선사이신 문성공 회헌 안선생께 감히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사도(유학)를 높이 신봉하시고 우리나라 교학진흥의 선구자로 그 공이 교육기관에 길이 남아 백세의 유종으로 추앙되어 이에 상정일을 맞이 희생과 폐백과 술과 서직을 드리옵고 문정공 안씨, 문경공 안씨, 문민공 주씨를 배향하오니 흠향해 주시옵소서.

1
2

1-2. 축문祝文 작성

제주를 준비에 따를 때에는 상읍사례를 하여 예를 갖춘다.

근봉謹封

봉준封尊

봉준은 향사에 올리게 될 술을 술 항아리에 담아 봉입封入하는 의식이다. 봉준은 전사청에서 행한다. 헌관과 재유사가 전사청에 정좌하면 도감이 술병(청주)을 따서 원위와 배위의 준尊(술항아리)에 차례로 담아서 봉한다. 정위와 배위 3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준에 술을 채우고 봉하는데, 봉함지에 '정위', '차위', '삼위', '사위'를 써서 정위와 배향위를 구분한다.

제주화인

제주확인

진설陳設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는 것을 실찬實饌이라 하고, 실찬한 제기를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진설 담당 집사들이 제수를 종류별로 정돈한 다음 원위와 배향위를 구분하여 실찬한다. 변에는 미나리와 무를 함께 담아 한 그릇, 밤, 대추, 호두를 함께 담아 한 그릇, 배와 사과를 각각 한 그릇에 담아 4변으로 한다. 두에는 상어와 조기, 방어를 각각 한 그릇에 담고, 명태와 대구포를 한 그릇에 담아 모두 4두로 한다. 희생은 시성豕腥 한 가지로 하며 원위에는 돼지머리를 올리고 배위에는 육괴를 각각 올린다.

소수서원 진설도 (紹修書院 陳設圖)

<退溪 李滉>

安文成公春秋享圖

(配位同)

紹修書院 享禮陳設圖(실제)

원위 진설 [illegible]設

제물 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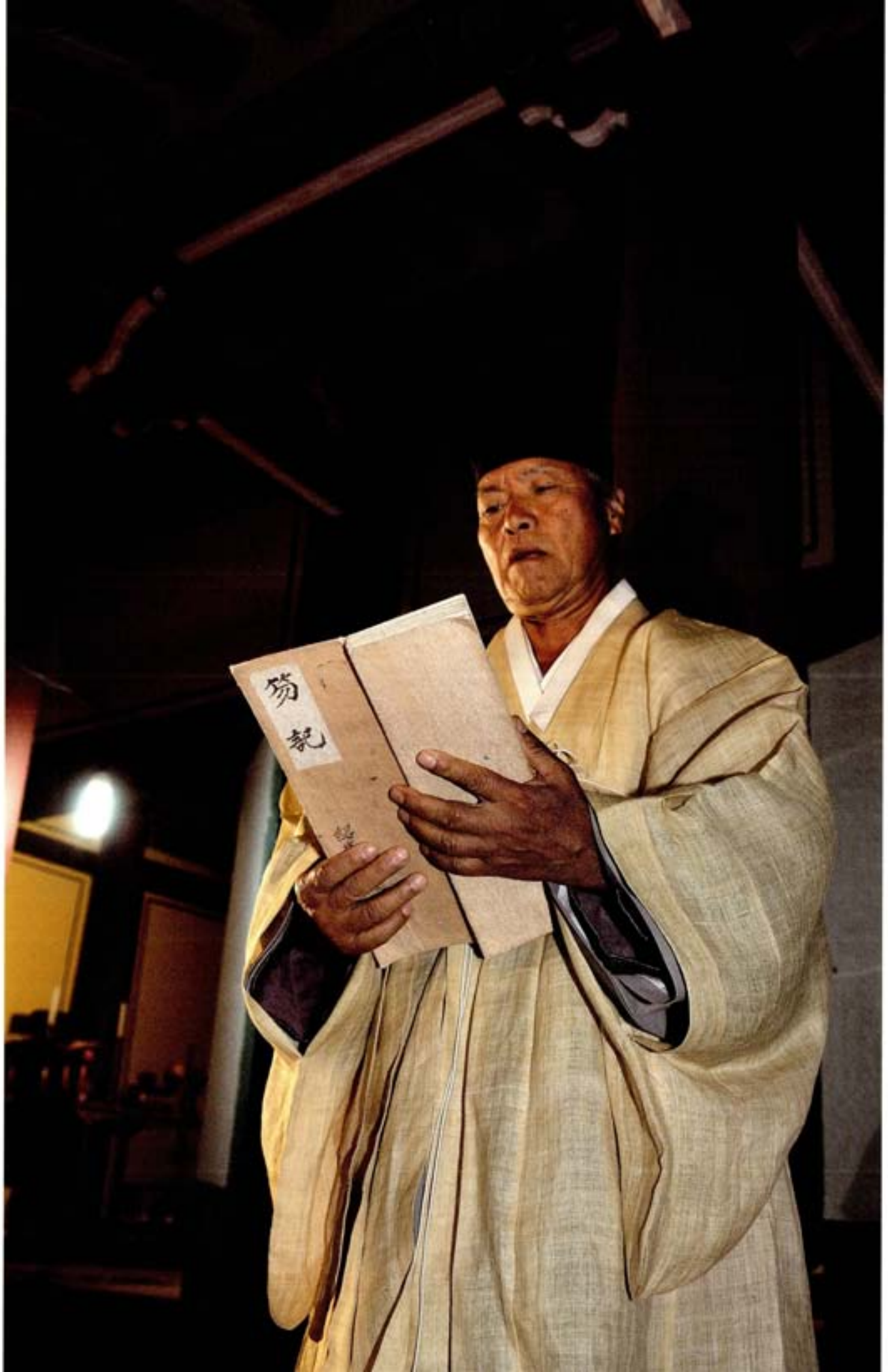
진설陳設

제물 진설

1 2

1. 저녁식사
2. 상차림

1. 상읍례相邑禮
2. 창음唱音


勞記

진설은 변두를 신위의 좌우에 놓고 보궤를 변두의 사이에 놓으며 보궤 앞에 희생을 올린다.

(2) 향사享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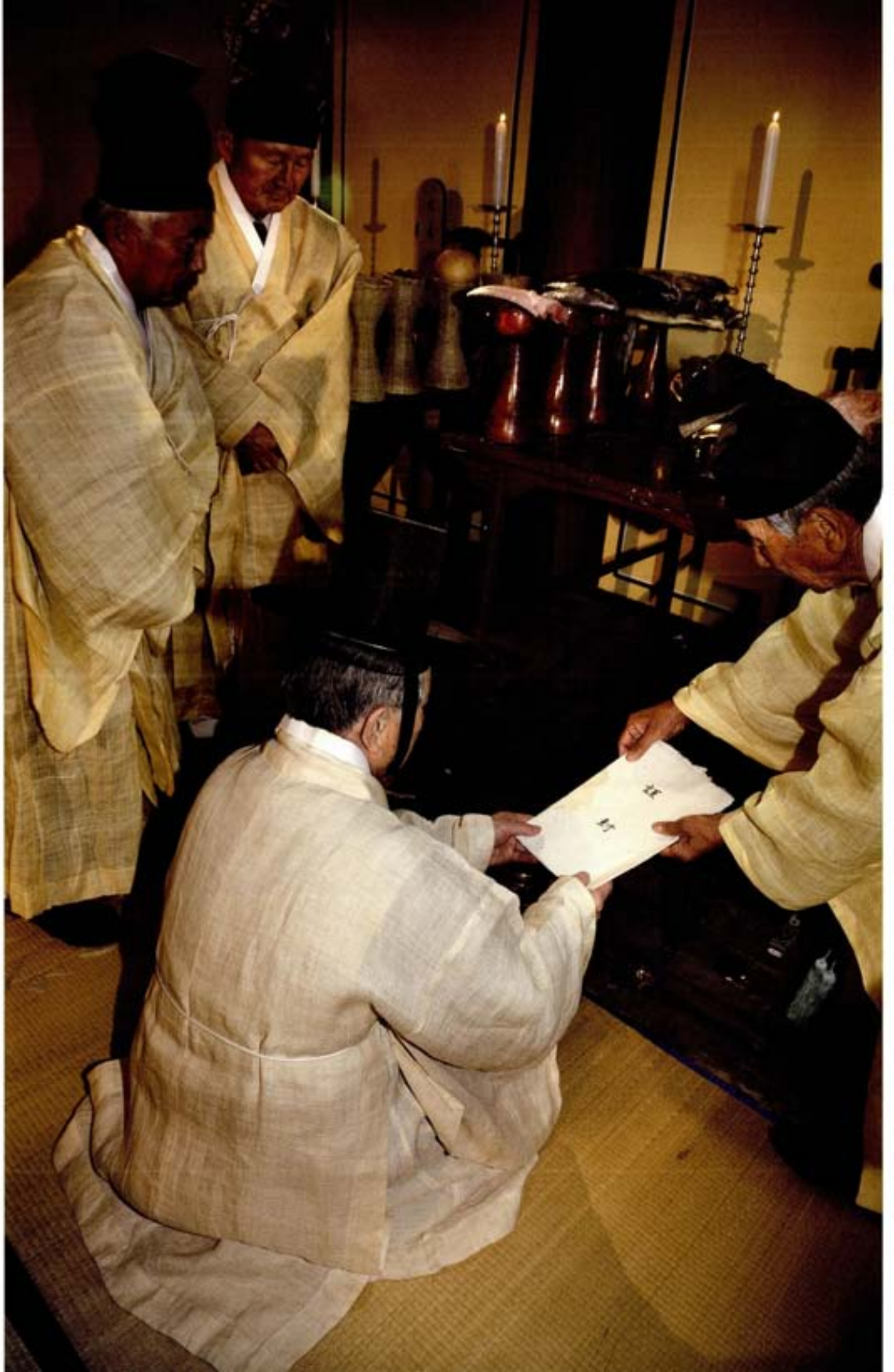
소수서원의 향사는 자정이 지나서 봉행된다.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도감이 "행사 아뢰오" 삼창하여 행사시작을 알린다. 알자와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묘정 문밖에 서면 뒤를 이어 제집사 및 제관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마주보며 상읍례를 행한다. 집례가 먼저 재배하고 묘우 당상에 올라 창홀하여 행사가 시작된다. 찬인은 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묘정 계간배위에 들어가 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은 후 각자 봉무할 자리에 들어간다. 이어서 알자와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재배한다.

삼향례上香禮

삼향례는 초헌관에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문성공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아 삼상향과 전폐례를 행한다. 축이 폐백을 들어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두 손으로 받들어 헌폐하고 집사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다음에 3배위의 신위전에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과 전폐례를 행한다. 순서는 소목의 위차에 따라 먼저 동벽의 문정공위(안축)로부터 다음에 서벽의 문경공위(안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동벽의 문민공위(주세붕)에게 차례로 예를 올린다. 상향례가 모두 끝나면 초헌관은 자리에 돌아간다. 헌관이 묘우에 출입할 때는 중문으로 들어가 동문으로 나온다.

1 2

1. 삼상향三上香
2. 문민공위文敏公位 헌폐獻幣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정위 준소에 나아가 사준이 술을 따르는 것을 감작監爵한 후 문성공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전작이 사준으로부터 작을 받아 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은 두 손으로 공경히 받들어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작을 올리는 위치는 제상의 앞쪽에 작점爵坫이 마련되어 있다. 초헌의 작은 서쪽 제1점에 올려놓는다.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하는 동안 제관들은 모두 부복한다.

축문 낭독이 끝나면 도동곡道東曲을 낭송하는 '악정樂正'순서이다. 악원 2인이 묘정 중앙에 나와 도동곡의 초헌 악장을 창하는데 악원은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합창한다. 비록 악곡은 전해오지 않지만 옛날 선비들이 경전을 성독하는 가락으로 노래하며 그 내용이 도학의 연원淵源과 성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향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게 한다.

伏羲神農 黃帝堯舜 (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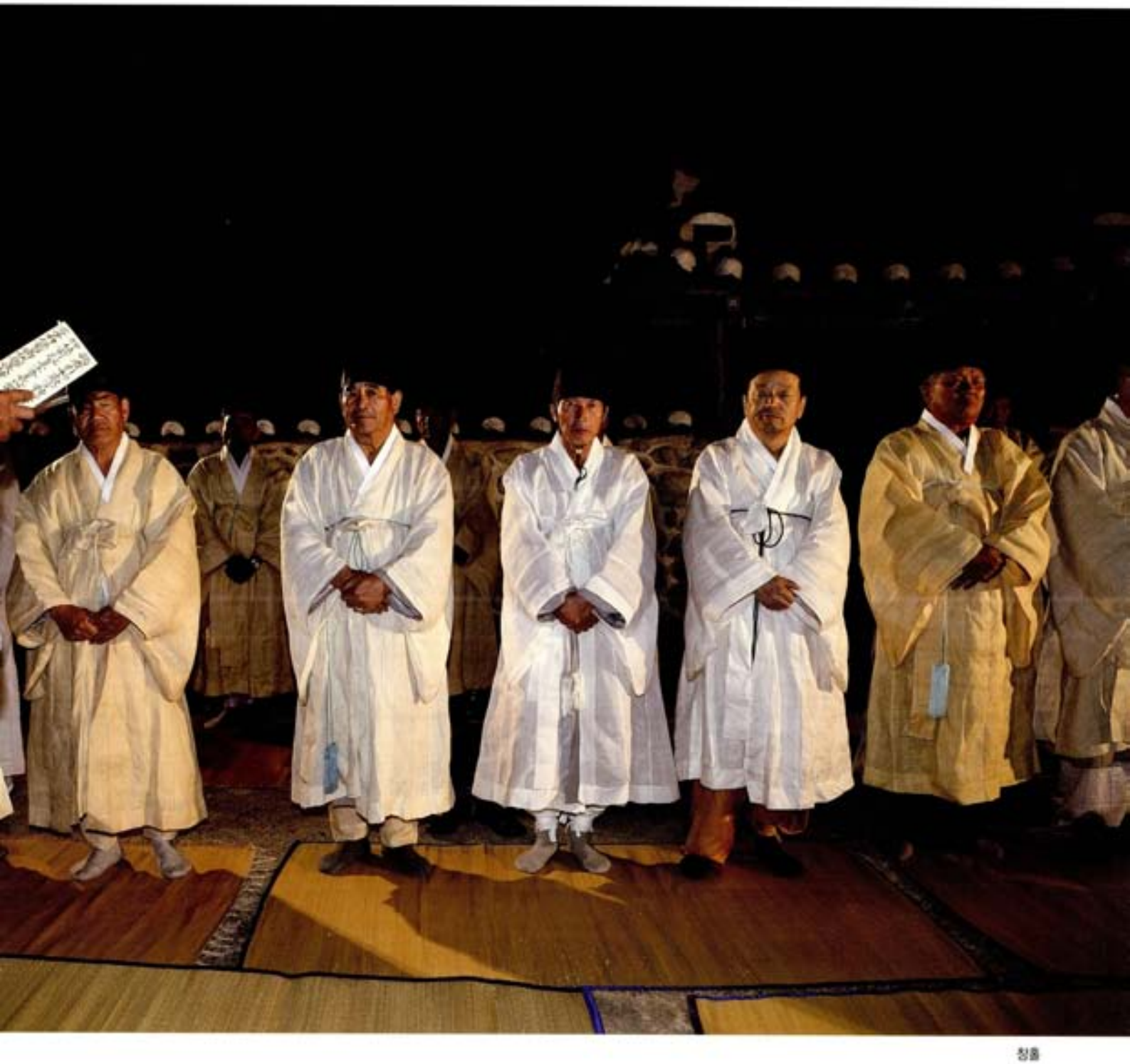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주거니 받거니 聖人의 心法이 다른 잇분니이다

禹湯文武 皐伊周召 (再唱) 偉-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도동곡은 젊어서부터 도동곡을 불렀던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묘정에서 마주서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부르던 원음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헌작 때에 삼헌관이 바뀌듯이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도 헌관이 바뀔 때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 유생 3인으로 바꿔서 부르게 하였으므로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은 모두 4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동곡을 전수하여 부를 수 있는 젊은 유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성이 좋고 도동곡 가창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부른다. 이 날은 서석원 · 이갑선 두 분이 맡아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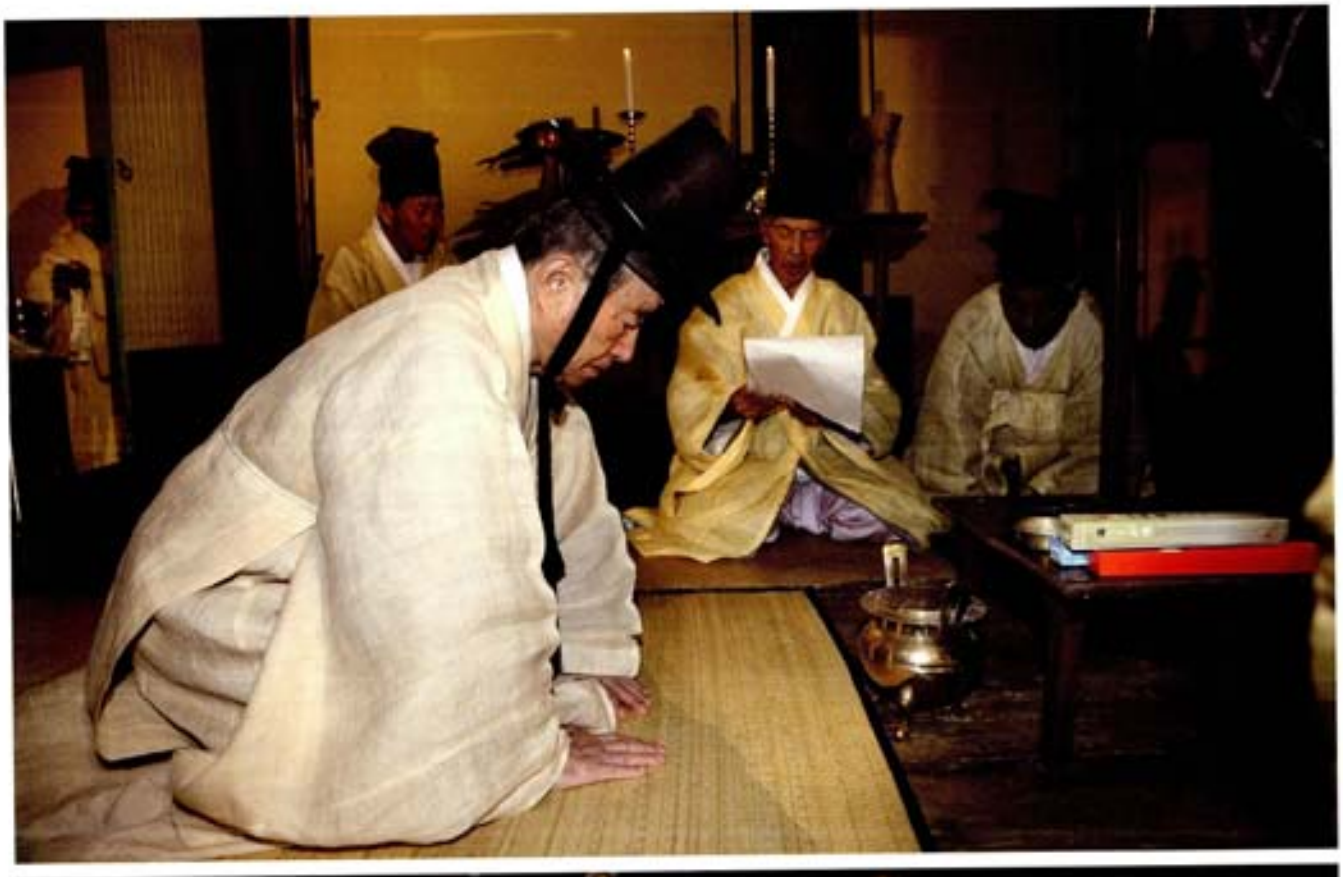
도동곡이 끝나면 초헌관은 일어나 배위 준소인 문정공준소로 가서 감작監爵하고 신위전에 나아가 전작한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문경공, 문민공 신위전에 헌작을 마치면 자리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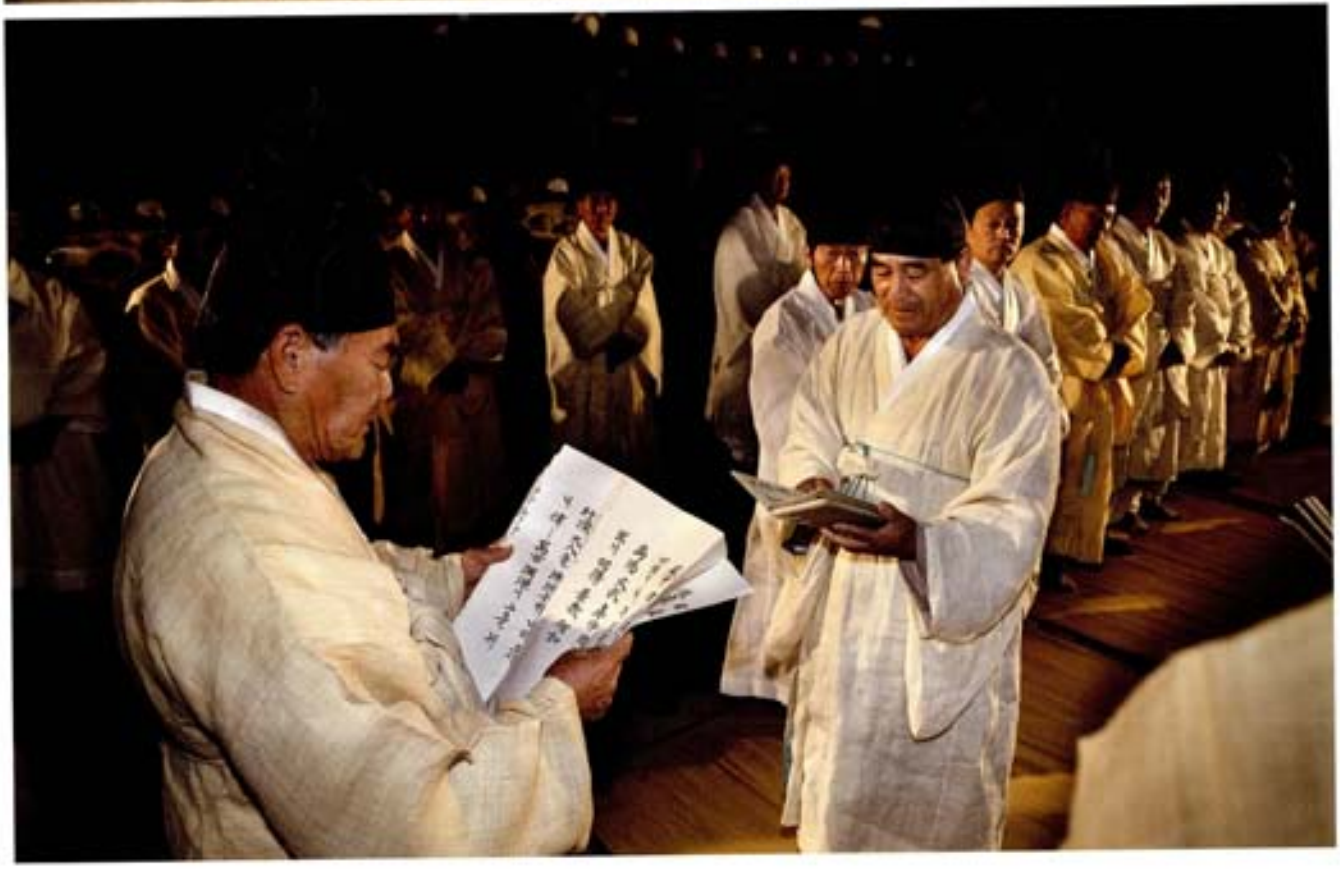


창홀

초헌례 初獻禮

1. 감작 監爵
2. 독축 讀祝
3. 악정 樂正(도동곡 초헌악장 낭송)





아헌례亞獻禮

아헌례는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로 행례절차는 초헌례와 같다. 다만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점에 올리며 도동곡의 악장이 바뀌는 것만 다르다.

下土 茫茫커늘 上帝是憂ᄒᆞ사 玗頂大人을 洙泗으ᄒᆞ ㅣ 누리오시니
偉- 萬古淵源이 그츨뉘업ᄉᆞ삿다
顔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率ᄒᆞ리 天命之性 養ᄒᆞ리 浩然之氣(再唱) 偉- 至誠無息이아本니이다
光風霽月 瑞日祥雲(再唱) 偉 그처딘 긴늘 얻데ᄒᆞ아니ᄋᆞ신고

종헌례終獻禮

종헌례는 신위께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로 행례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다만 작을 세 번째 점에 올리며 도동곡의 악장의 내용이 다르다.

人欲이 橫流ᄒᆞ아 浩浩滔天일ᄉᆞ ㅣ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샷다
敬으로 本늘세어 大防을 명ᄀᆞ라시니 偉- 往聞來아 仲尼나 다ᄅᆞ시리잇거
三韓 千萬古애 眞儒를 누리오시니 小白이 盧山이오 竹溪이 濂水로다
興學衛道ᄂᆞᆫ 小分네 이리어니와 尊禮晦菴이 그 功이 크샷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종헌례가 끝나면 헌관은 함께 재배한다.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음복수조례는 신이 흠향한 음식을 초헌관이 맛보는 의례이다. 음복위는 묘우의 당상 동문 앞에 마련한다.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으면 집사가 문성공 준소에 가서 복주福酒를 뜨고 축은 신위전의 조육胙肉을 가지고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간다. 집사가 작을 헌관에게 드리면 헌관은 받아 다 마시고 작을 돌려준다. 다시 집사가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은 수조한 후 자리에 돌아간다. 복을 받은 감사의 예[受福之禮]로 헌관 이하 모두 함께 재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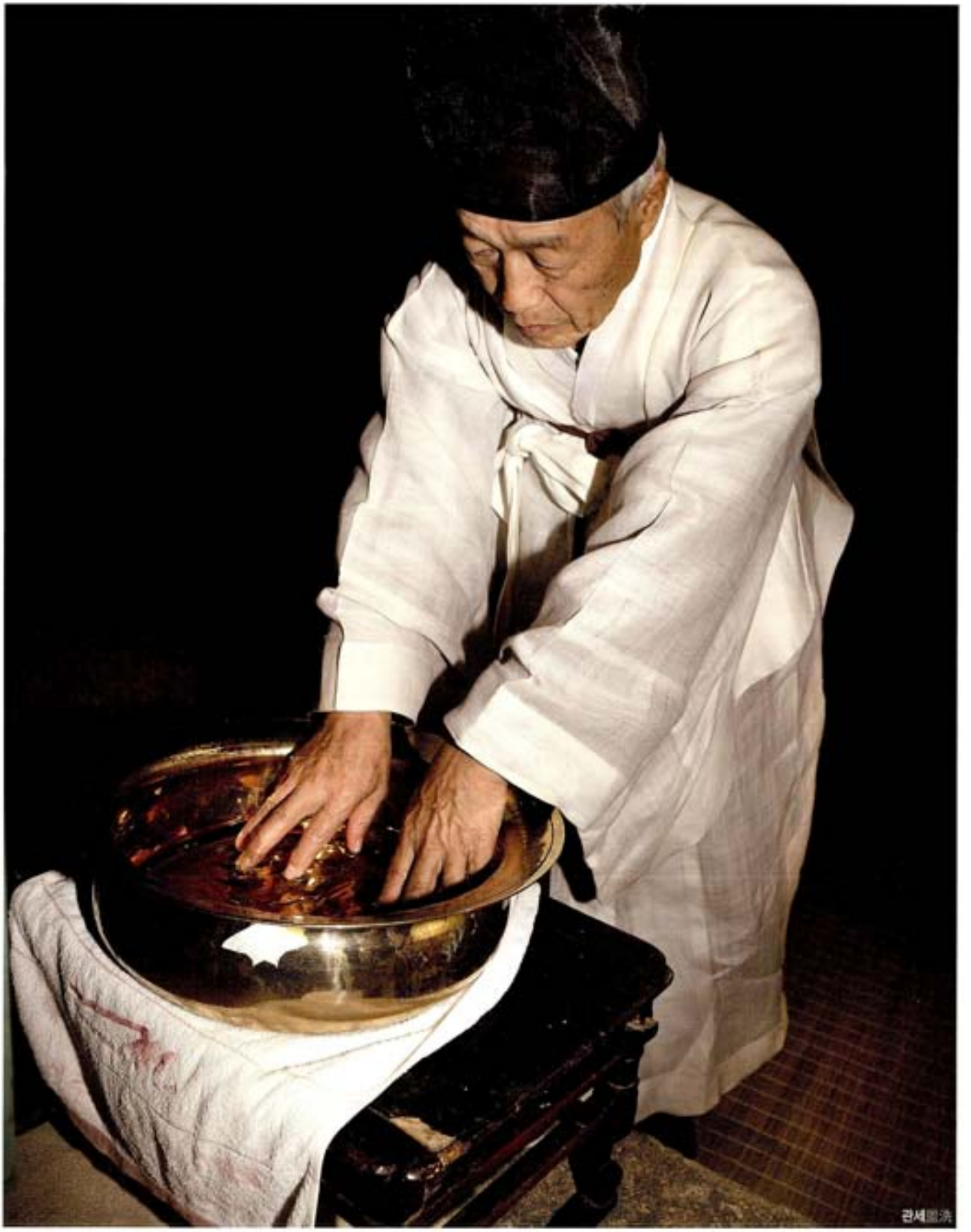
철변두撤籩豆

철변두는 제상의 제물을 거두는 의례인데, 축이 변과 두를 조금씩 옮겨놓는 것으로 갈음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신위에 대한 모든 의례는 끝났으므로 참례자 모두 재배하여 송신의 예를 올린다.

감작

아헌례 아헌례

현작獻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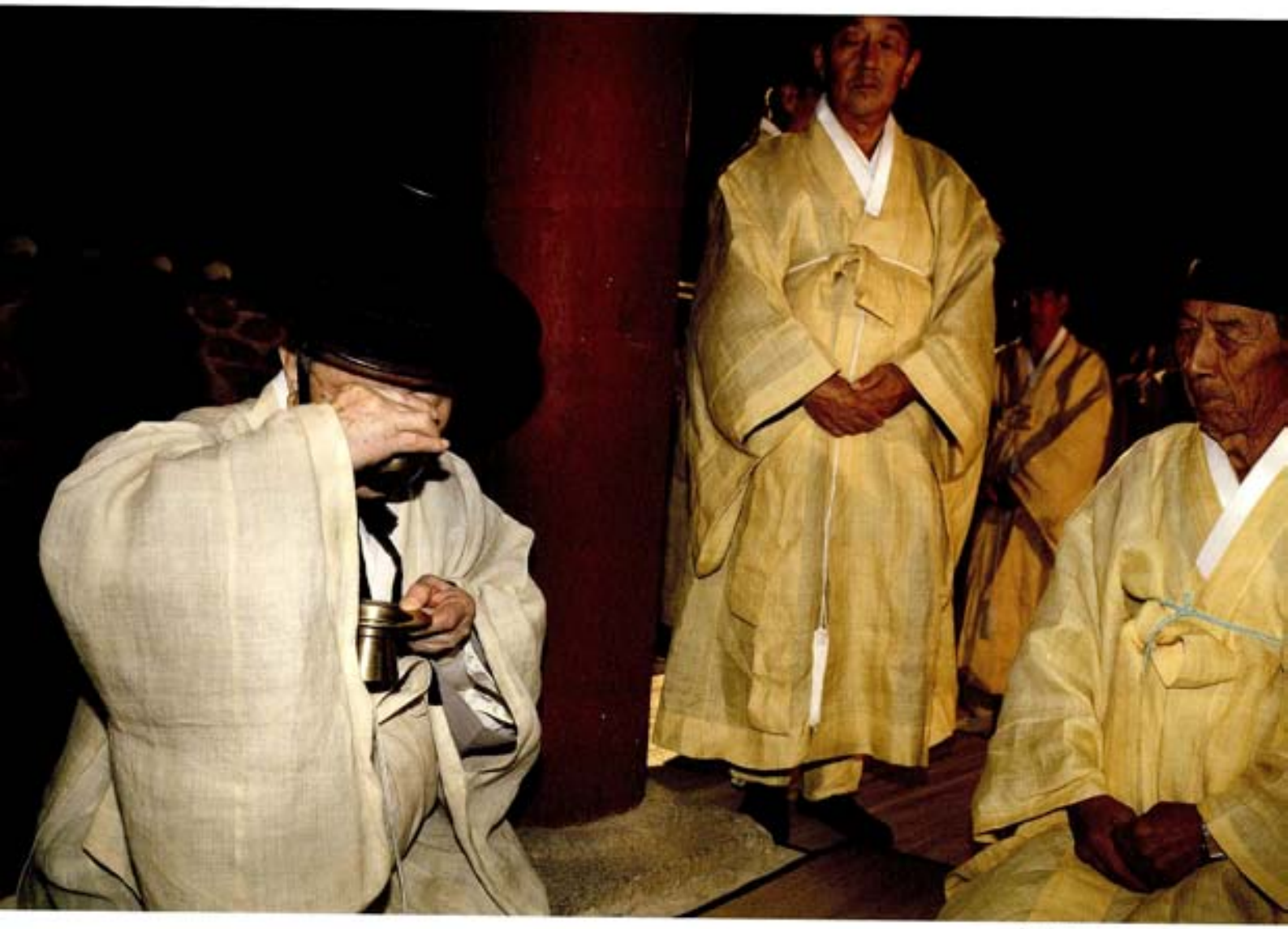

관세音洗

文成公
德博問曰文
民立政曰
文成公 晦軒安先生

道德博問曰文
文民立政曰

종헌례 終獻禮

1 · 2 현작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철면두

망예례望瘞禮

망예례는 신위께 올린 축문을 땅에 묻는 의식이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축문을 묻는 예감瘞坎은 보통 사당의 서편에 구덩이를 마련하여 놓는데 소수서원에서는 묘우의 서편이 협소하여 옹기 항아리로 대신하고 있다. 축은 축판을 들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축문을 묻는 예가 끝나면 알자는 초헌관 좌측에 나아가 예필禮畢을 고한다. 이로써 모든 향사의 예가 끝나고 알자와 찬인은 헌관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축과 제집사들은 배위로 내려와 재배하고, 마지막으로 집례가 재배한다. 집사들은 사당에 들어가 합독하고 철찬한다.

1. 망예례望禮禮
2. 예감瘞坎 대신 용기를 사용한다.
3. 신위합독神位匣櫝

음복례飮福禮

파제일 아침 7시경 강당에서 음복례가 시작된다. 향사는 음복례가 끝나야 모든 제례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관들은 음복례 전에 서원문을 나설 수가 없다. 도감이 "개좌 아뢰오"를 삼창하면 모든 제관은 강당에 헌관과 축집(축과 집례)을 중심을 둘러서서 상읍례를 행하고 좌정한다. 도감이 축집 앞에 나아가 행사 때에 실례가 있었는지 살펴달라고 아뢴다. 실례 여부를 추책한 후에 제사 공사를 파한다.

음복례는 먼저 초헌관의 착주로 순배巡杯를 하고 이어서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순배를 한다. 술잔을 드는 데도 예를 갖추어 잔을 입에 대기 전에 좌읍을 하고 술잔을 들며, 석잔 이상은 마시지 못한다. 음복례가 끝난 후 당회堂會를 개회하여 차기 원장을 천망한 후 모든 행사를 파좌罷坐하였다.

제사공사祭祀公事

음복례飮福禮

1. 음복상을 들인다.
2. 순배巡杯
3. 상위에 있는 음식은 각자 가져간다.

4)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서원향사에 쓰는 제기와 제물은 국가전례인 향교의 석전釋奠의 예에 준하여 올린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물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전禮典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그에 담는 제수의 종류와 품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변·두籩·豆

변籩은 마른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豆)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국가 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 관학官學인 향교 석전은 소사의 예에 해당하므로 8변 8두를 차리는데, 사학私學인 서원은 6변 6두, 4변 4두 또는 2변 2두 등으로 낮추어 진설한다. 소수서원에서는 4변 4두의 법식으로 진설한다.

변籩

두豆

소수서원은 창건 당시 신재 주세붕 군수가 정한 '안문선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와 퇴계 이황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한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春秋享圖'가 전래되어 오고 있다. 신재의 진설도에는 백자柏子, 건조乾棗, 율황栗黃, 녹포鹿脯를 4변으로 하고, 구저韭菹, 밀과(密果), 청저菁菹, 어해魚醢를 4두로 도해되어 있다. 후에 퇴계는 좌변에서 율황 대신에 어수를, 우두에서 밀과를 녹해로 대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현재 소수서원 의례집에는 퇴계의 진설법을 따르는 것으로 좌변左籩에 건조乾棗, 어수魚鱐, 백자柏子, 녹포鹿脯를, 우두右豆에 구저韭菹, 녹해鹿醢, 청저菁菹, 어해魚醢의 진설로 도해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진설내용은 찬품과 배열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좌변左籩에는 근저芹菹(미나리)와 밤, 배, 사과 등 과일류를 1열로 놓고 우두右豆에는 상어, 조기, 방어 및 어포(명태와 대구포) 등 어물을 1열로 진설하고 있다. 그리고 4변 4두와는 별도로 제상의 중앙에 녹해를 따로 올리는 등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궤簠·簋

보궤는 동으로 만든 제기인데, 모양은 보는 네모나고 궤는 둥글다. 보簠에는 도稻(벼)와 량粱(기장)을 담고, 궤簋에는 서黍(수수)와 직稷(피)을 담는다. 보와 궤는 항상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다. 향교 석전에서는 2보 2궤를 갖추어 도·량·서·직을 차리는데 서원 향사에는 보통 1보 1궤에 도와 서 두 가지를 올린다. 소수서원에서는 신재와 퇴계의 향례도에는 모두 2보 2궤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은 보에 쌀을 담고 궤에 기장을 담아 1보 1궤를 진설한다. 언제부터 보궤의 수가 감소되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보簠

궤簋

조俎

조俎

조俎는 소, 양, 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는 제기이다. 현재 성균관 석전대제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양성羊腥.시성豕腥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 석전에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 두 가지를 쓰는데, 서원에서는 희생은 한 가지만 올린다. 소수서원의 신재와 퇴계의 향례도에는 계성雞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향교 석전에 준하여 시성豕腥을 올리고 있다. 이 역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옛날에는 희생을 서원에서 직접 잡아서 제수를 마련하였는데 도축하기 전에 헌관과 집사들이 예를 갖추어 희생의 흠결 여부를 살피는 성생례를 행하였다. 서원 정문 입구에 성생단이 남아 있고 성생 흔기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은 서원에서 직접 도축을 하기가 어려워 시내 정육점에 의뢰하여 희생을 준비한다.

폐백幣帛

비篚

비篚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이다. 폐백은 원래 흰 모시(苧布)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보통 흰 면포나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한지를 접어 근봉하여 폐백으로 사용한다.

작爵

헌작 때 사용하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위와 3배위에 모두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준비한다.

점坫

축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유기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축판을 올려놓는 것은 축점祝坫,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坫이라고 한다.

준樽

준樽

준樽은 제향 때 올리는 술을 담는 용기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아헌.종헌에 각각 희준犧樽.상준象樽.산뢰山罍 등 다른 것을 사용하며 제주祭酒도 각기 다르다. 희준은 소의 모양을 한 것으로 초헌용의 예제醴齊를 담고, 상준象樽은 코끼리 모양을 한 것으로 아헌용의 앙제盎齊를 담으며 산뢰山罍는 산의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종헌용의 청주淸酒를 담는다. 소수서원에서는 산뢰 한 가지만 정위와 배위의 신위별로 각각 따로 준비한다.

작勺

헌작이나 관세 때에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멱冪

술 항아리를 덮는 덮개인데, 소수서원에서는 한지로 근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향로香爐

유기로 만든 향을 사르는 예기이다.

향로香爐

향합香盒

유기로 만든 향을 담는 예기이다.

향합香盒

재유사와 도감은 향사에 사용하게 될 제기를 점검하고 세척하는 척기滌器의식을 행한다. 제기는 제기고에서 미리 꺼내어 잘 씻고 닦은 후 묘우 안에 잘 정돈해 놓는다. 향례 전에 제기의 종류와 명칭, 예찬의 실찬實饌 방법과 각 소임의 역할 및 봉무요령에 대하여 교육한다.

元位

3. 소수서원 향사의 특징

1) 도동곡 道東曲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은 향례절차에 있어 다른 서원과는 상이한 특징이 있는데 초헌·아헌·종헌에 진작할 때마다 도동곡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며 행사하는 점이다. 도동곡은 신재 주세붕이 직접 지은 것으로서 유학의 연원과 그 실천, 그리고 공자·주자 등의 도학을 칭송하고, 도학이 안향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사는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의 초·중·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와 악이 조화를 이루는 제례악으로 제정되었으나 곡은 일실되고 가사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원 향사에는 소수서원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려지는 제례악이다.

향사 시에 도동곡을 부를 때에는 젊어서부터 도동곡을 불렀던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묘정에서 마주서서 같이 부르게 하고 있는데 곡의 원음을 잃지 않고 후세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헌작 시에 삼헌관이 바뀌듯이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도 헌관이 바뀔 때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 유생 3인으로 교체하여 도동곡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4명이 된다. 종묘대제와 문묘 석전에서 제례악이 연주됨으로써 예악의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의례를 더욱 장엄하게 하는 효과에 비추어볼 때 악곡이 일실되고 소수서원 창건 이후 다른 서원에 확산, 계승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도동곡은 초헌·아헌·종헌 시에 헌관이 원위인 문성공 신위께 헌작하고 난 후에 부르며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初獻>

伏羲神農 黃帝堯舜(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주거니 받거니 聖人의 心法이 다른 잇분니이다

禹湯文武 皐伊周召 (再唱) 偉 -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요순堯舜이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시니,

그 광경 어떠한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실로 중中을 잡을 수 있다는 말로 주고받는 성인의 심법心法이란 이것뿐이다.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과 고요皐陶·이윤伊尹·주공周公·소공召公, 군신이 서로 만나시니, 그 광경 어떠한

고,

<亞獻>

下土 茫茫커늘 上帝是憂ᄒᆞ사 圩頂大人을 涑泗으ᄒᆞ | ᄂᆞ리오시니

偉- 萬古淵源이 그츨뉘업ᄉᆞ삿다

顔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率ᄒᆞ리 天命之性 養ᄒᆞ리 浩然之氣 (再唱) 偉- 至誠無息이야本니이다

光風霽月 瑞日祥雲 (再唱) 偉 그처딘 긴늘 얻데ᄒᆞ야니ᄋᆞ신고

하토下土가 아득하니 상제께서 이를 걱정하사 우정대인圩頂大人 : 공자을 수사涑泗 위에 내리시니, 만고연원이 그치지 아니하다. 안연顔淵의 사물四勿과 증자曾子의 삼성三省이여, 우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으려 함에 더욱 견고하며 앞에 보이는 듯하다가 문득 위에 있도다. 성인을 배우며 수고로움을 잊으셨으니, 그 광경 어떠한고. 따라야할 것은 하늘이 명한 성性이며, 함양해야 할 것은 호연浩然한 기운, 지성무식至誠無息이 근본이니라.

광풍제월光風霽月 서일상운瑞日祥雲, 도통이 끊어진 기나긴 날에 어떻게 아셨을까?

<終獻>

人欲이 橫流ᄒᆞ야 浩浩滔天일ᄉᆞ |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삿다

敬오로 本늘세어 大訪을 명ᄀᆞ리시니 偉- 繼往開來야 仲尼나 다ᄅᆞ시리잇거

三韓 千萬古에 眞儒를ᄂᆞ리오시니 小白이 廬山이오 竹溪이 濂水로다

興學衛道ᄂᆞᆫ 小小分네 이리어니와 尊禮晦菴이 그 功이 크삿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사람 욕심 걷잡을 수 없어 하늘까지 뒤엎었도다. 1천 5백년만에 주자께서 태어나시어 경敬으로 근본세워 큰 언덕 만드시고 옛 성인 이으시고 후학을 열어 주셨도다. 아, 공자와 다를 바 있으랴!

심한 천만년에 진유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廬山이요, 죽계수竹溪水가 염수濂水로다.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보위함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를 높이 모신 그 공이 크시어 우리나라에도 도가 전하여졌으니, 그 광경 어떠한고. (죽계는 소백산에서 나오고, 염계는 여산에서 나온다)

2) 홀기와 의례절차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으로서 향례에 대한 의례절차를 적은 가장 오래된 홀기를 보존하고 있다. 창건 당시 신재 주세붕 군수가 제정한 수필手筆 홀기와 나중에 퇴계 이황이 이를 수정, 보완한 홀기는 서원 향사의례 절차의 시원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퇴계가 보완한 서원의 향사는 관학인 향교의 석전을 기준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앞의 신재 홀기를 수정하는 사유와 의례절차의 의미를 고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교 석전이나 서원향사의 가장 표준적인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석전의釋奠儀에서 수조 후 사배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절[受福拜]이고, 철변두 후의 사배는 제례를 마치는 절[祭畢禮]"이라고 정의하며 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가 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참례가 모두가 절하는 것은 영신례迎神禮와 음복수조례, 그리고 송신례送神禮 때 세 번이 된다. 이 절차는 『국조오례의』나 『태학지』에 규정된 바와 같다. 지금도 그 의미를 정확이 파악하지 못하고 향교나 서원향사 절차에서 음복수조 후에는 헌관만 절하는 것으로 잘못 행례하는 곳이 많이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이 홀기의 원형대로 시행하고 있다.

소수서원 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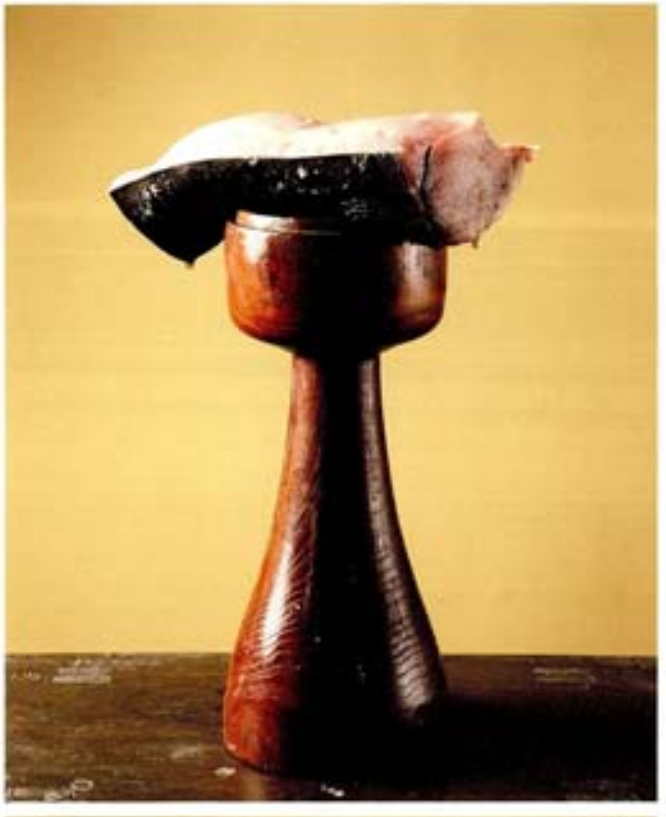
3) 제물과 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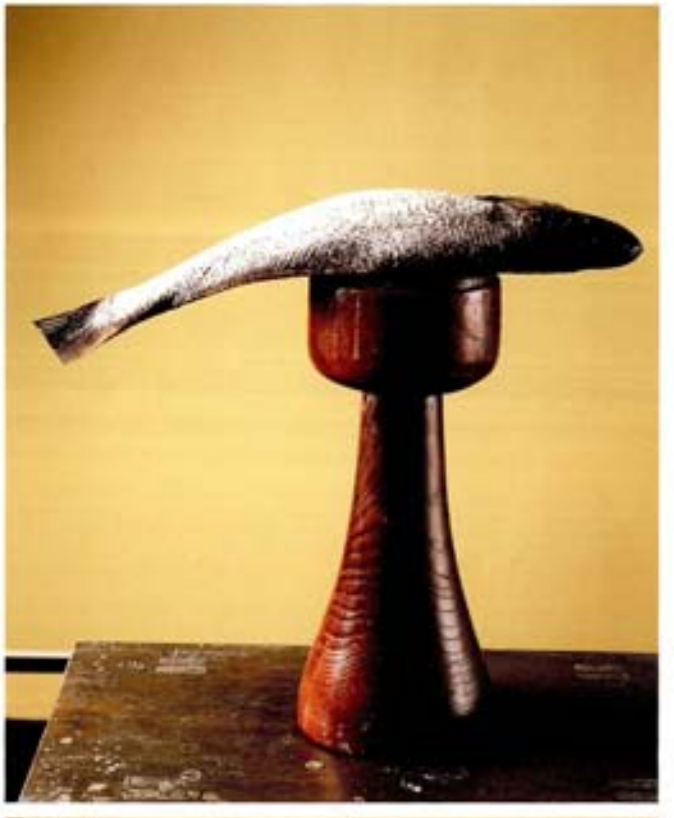
진설도 역시 신재가 제정해 놓은 '안문선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와 퇴계 이황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해놓은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春秋享圖'가 지금까지 전래되어오고 있다. 신재의 진설도에는 신위의 좌측에 백자柏子.건조乾棗.율황栗黃.녹포鹿脯를 4변으로 하고, 우측에 구저韭菹.밀과蜜果.청저淸菹.어해魚醢의 4두로 진설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퇴계가 학궁의 제사에 밀과를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여 밀과 대신에 녹해鹿醢를 쓰도록 하였고, 변에도 과일 중 한 가지를 어수無輸로 대신 쓰도록 하여 건조.어수.백자.녹포를 4변으로, 구저.녹해.청저.어해를 4두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변두의 배열 역시 석전의 법식에 준하여 2열 2행으로 도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설은 찬품의 내용과 배열법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변左邊에는 근저芹菹와 밤, 배, 사과 등 과일류를 놓고 우두右豆에는 상어, 조기, 방어 및 어포(명태와 대구포) 등 어물을 진설하고 있다. 찬품은 국가전례와 가례제사의 품목을 혼용하고 있는 듯 하며, 배열방식도 1열로 진설하는 등 변형된 모습이다. 더욱 특이한 사항은 4변 4두와 별도로 녹해를 제상의 중앙에 따로 진설하고 있다. 변두가 포과脯果와 해저醢菹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선현의 향례도가 있는데도 언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다.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형대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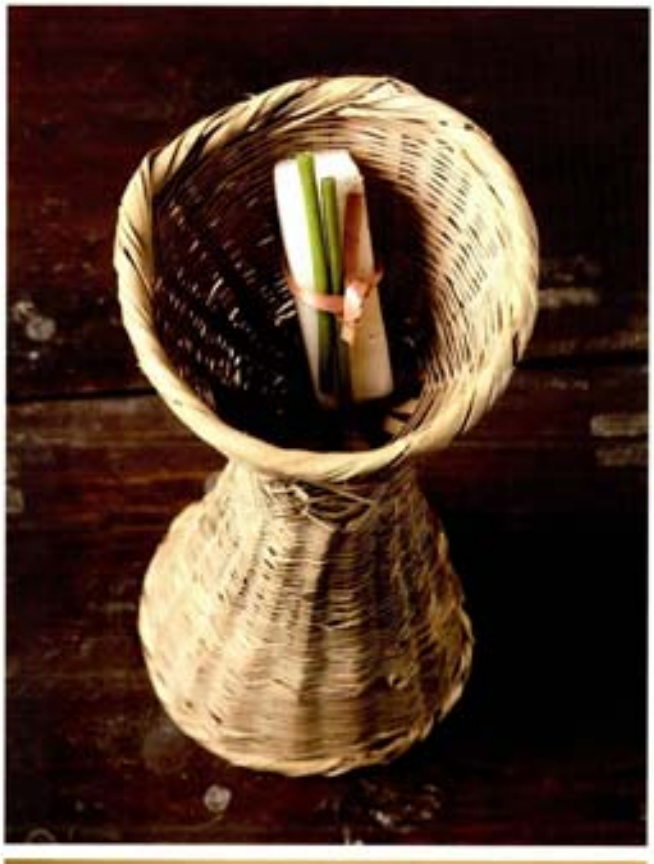
제물祭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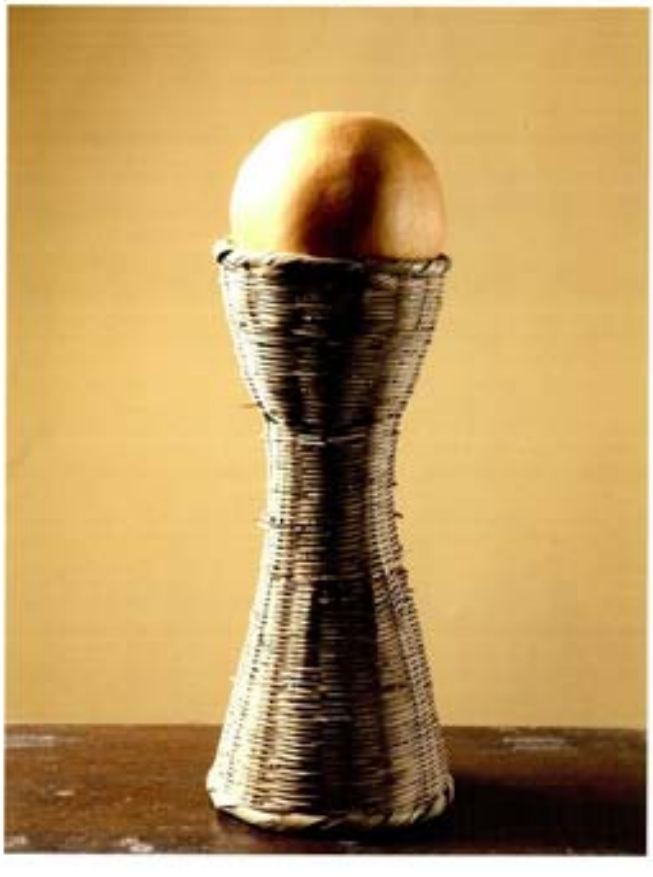
1. 제물 찬설도祭設圖
2. 제물 구입
3. 품목표
4. 제물 준비





두豆와 변籩에 차리는 제물





4. 소수서원의 운영과 전승

1) 운영과 조직

소수서원의 운영의 원규는 주세붕이 저술한 『죽계지竹溪志』(1544년)에 수록되어 있는 원규院規와 잡록雜錄에 수록되어 있는 사문입의斯文立議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원규는 주세붕이 만들었다. 서원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원규의 첫 번째 구절에 다섯가지로 집약되어 있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드러난다. 특히 서원의 총괄과 실무를 관장하는 직제를 구분하여 서원 업무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원의 중요한 기능인 제향의 일정 확정을 비롯해, 교육을 위한 서적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원규의 내용[2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원문은 부록에 수록

- 첫째, 제사를 경건히 봉행할 것. 둘째, 어진 이를 예우할 것. 셋째, 사담을 잘 보수할 것. 넷째, 물자를 비축할 것. 다섯째, 서책을 점검할 것.
- 사문斯文은 총괄 점검하고, 유사有司는 실무를 관장한다.
- 특별히 학문에 종사하면서 신심한 이 한 명을 선택하여 원장院長을 삼고, 또 한 명을 선택하여 차석으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 춘추제향은 으레 마지막 달(3월, 9월) 상정일上丁日로 정하여 거행하되, 사고가 있으면 중정일中丁日로 한다.
- 삼헌관三獻官과 육집사六執事를 갖춘다.
- 재계하는 날 헌관이 장서藏書를 점검하여 햇볕을 쪼이고, 담장과 집이 무너졌거나 새는지를 살펴보고, 미곡과 기타 기물을 회계한다. 향사 당일에 여러 사문과 이를 다시 살핀다.
- 고을 수령의 자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 수령의 자제가 서적을 마음대로 다루게 해서는 안 된다.
- 활쏘기와 유연遊宴을 금한다.
- 서원을 지키는 네 집에 대해서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시키고, 누구라도 일을 시킬 수 없고 관아에서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司馬일 경우 태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초시初試 입 격자로 한다. 그러나 초시 입격자가 아니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조행操行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는 이는 유사가 사문에 고하여 맞이한다.
- 별도로 <입원록入院錄>을 비치하여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들에게 반드시 직접 본인의 성명을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가 들어온 연월일年月日을 기록한다.

입의[24]는 서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유림들이 회의를 통해 기존 원규의 부족한 점을 수시로 보완하고 결의한 사항이다. 지금의 당회堂會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로 유림들이 모이는 정월 알묘, 향사 등의 시기에 보완점을 의논하고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춘향 입재일에 상의하여 정한 것을 소개[25]한다.

◎ 1700년(숙종 26) 3월 향사 때 완의(庚辰三月享祀時完議)

- 거재居齋는 일체 신재의 조약에 따라, 본관과 타관을 논하지 않고 1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먼저 입격 여부를 따지고 다음에 나이를 따진다.
-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은 입격자는 옛날 규례를 따르고, 정원에서 넘치는 인원은 날짜의 선후를 따져서 교체하도록 한다.
- 거재 유생은, 타관他官에 입격하여 그 원록院錄에 속하지 않는 자는 와서 숙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본부는 향외鄕外의 자제도 음식 제공을 허가하지 않는다.
- 동몽童蒙은 타관과 본관을 물론하고 약식을 가지고 와서 숙식한다.
- 본원에서 선비를 취하는 데에 이미 입격을 기준을 삼으니, 춘추향사와 모든 모임에서도 일체 옛 규례에 따라 출문하는 것 외에 참다하게 참여시키지 않는다.
- 본원은 고을 관아와 밀접하기 때문에 관아에 출입하는 사람이 본원을 숙식 장소로 삼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재정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사체事體로 볼 때에도 온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일체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여전히 참다한 폐단이 있을 경우에는 서원 하인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비용을 감해주지 않는다.
- 입격 유생이라 하더라도 일 없이 들어와 여러 날 지체하면 음식 제공을 허가하지 않는다.
- 서원은 사림의 중요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신재新齋가 조목條目을 세우면서 선현의 자손에 대하여도 특별히 종사하도록 한 규례가 없고 일반 유생과 다름 없다. 이들도 공공물자를 쓰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조목을 세운 뒤에 사심에 따라 준행하지 않는 일이 있을 경우 임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 외에도 소수박물관에 기탁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 중 소수서원입의紹修書院立議[26]가 있는데 작자와 연도는 미상이다. 하지만 내용 중에 서원의 재물과 관련된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아 서원의 재물 낭비,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1700년대 중반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원규와 입의를 참고하여 만든 현 소수서원 원규는 1994년 제정되었고, 2006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원규에 없는 사항은 유가의 전통과 사회 통념에 따르고 있다.

이 원규의 제정은 회헌 안향晦軒 安珦과 안보安輔, 안축安軸, 주세붕周世鵬의 유덕遺德을 숭모선양崇慕宣揚하고 향사존현享祀尊賢하며, 소수서원을 수호, 발전시키는 등의 원무院務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소수서원의 주요 사업은 ㉠본원에 배향된 선현들의 제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유교사상

24 잡록에 수록된 사문입의의 내용 중 원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의는 완의와 같다.

25 원문은 부록에 수록

26 원문은 부록에 수록

- 본소의 대소 임원은 반드시 문관(文官)과 생원·진사 합격자 중에서 선비로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 정하고, 요행으로 입격한 사람을 안면에 구애되어 뒤섞어 천망하지 않도록 한다.
- 거재 유생은 상시 숙식하는 정원 외에는 음식 제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 본소의 보곡(寶穀)으로 혹은 아랫사람에게 빌려준다고 하고, 혹은 장리를 놓는다고 하여 임원이 사사로이 출급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
- 매년 연말 회계는 반드시 옛날 규정을 준수하되, 만약 임원이 남용한 문제가 있으면 일일이 처벌하며, 매월 소하루에 지출한 액수를 회계하여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 서원 토지의 환상곡(還上穀)을 경내의 유생이 간여하여 취용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한다.
- 혹 읍내에 왕래하면서 서원 양식을 요구해 내는 자, 혹은 사적인 모임에 서원에서 음식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그 습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다시 이전 습관을 반복하여 서원 양식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 해당자를 적출하고 처벌하여 훗날의 폐단을 막도록 한다.
- 근래 서원 재정이 고갈되어 전과 같이 선비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형편이니, 사사 거재가 아니면서 재물을 쓰는 자는 타읍과 본읍을 논하지 않고 일체 방색(防塞)한다.
- 경내 유생이 혹 사적인 일로 서원에서 자릿 없이 머무는 자에게도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니, 더욱이 자주 와서 식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 서원에 들어온 지가 임원의 유무를 논하지 않고 혹은 서원이 텅 비었을 때를 틈타서 반드시 음식 제공과 관련하여 멋대로 폐단을 만들고, 값자기 술과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는 자는 특별한 모양으로 처벌한다.
- 경내의 일반 선비로서 임원과 불화가 있어 혹은 하인에게 매질을 하고 혹은 단자(單子)를 넣고 몰아서 잡아가는 등 거리낌 없는 행위를 하는데, 이런 풍습은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 앞으로 다시 이런 폐단을 일으키면 먼저 엄중한 벌을 내리고 과거 시험 때 고목(考目)을 허가하지 않는다.
- 본관(本官)은 으레 원장을 감임한다. 본원에 중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가에 몸신하여 처리한다.

•이와 같이 조목을 세운 뒤에 혹시라도 지키지 않고 이전 습관을 다시 행하는 자는 관가에 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7 ①고려(高麗)·조선(朝鮮) 시대(時代)에 국정(國政)·국은(國恩)·궁 궐(宮闕) 축조(築造) 등(等) 국가(國家)의 중대사(重大事)를 관장(管掌)하게 하려고 배문 임시(臨時) 관청(官廳). 후엔도감(訓鍊都監). 장에서 돈·곡식(穀食) 등(等)을 맡아보는 일 ②또는, 그 사람

의 보급과 활성화 및 장학사업 ㉢선현의 유적지 답심踏査 ㉣본원의 유지보수 및 유물·유적의 보존 ㉤한시백일장, 학술연구발표 등의 사업 ㉥기타 본원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서원을 이끌어가는 임원은 원장 1인, 재유사齋有司 2인, 별유사別有司 6인, 도감都監[27] 3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도감의 3인 중 2인은 지역 사람, 1인은 서원에 배향된 선현의 후손이 맡을 수 있다. 이들은 당회를 통해 선임한다. 원장, 재유사, 별유사의 임기는 6개월로, 춘추향사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고 도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이 가능하다.

원장은 본원本院의 대표로서 향사를 주재하고 서원 업무를 총괄하며, 당회의 의장이 된다. 단 원장 유고 시에는 재유사가 대행한다. 재유사는 향사의 제반의식을 점검하며, 별유사는 향사를 돕고 서원업무에 적극 동참(삭망분향례 등)한다. 도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향사를 돕고, 본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록의 작성, 유대 및 회계보고의 책임을 진다. 감사는 본원의 사업전반과 회계를 감사하여 당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기사항을 둔다.

1) 삼강오륜三綱五倫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유복인有服人은 임원에 취임할 수 없으며, 임기 중인 임원이라 하더라도 복을 입게 되면 그 직을 면한다.

3) 임원이 그 임무를 태만히 하면 본원이 따로 정하는 벌을 받는다.

4) 위의 사항을 위배한 사실이 밝혀지면 향사참례와 본원 출입을 금한다.

임원 이외 소수서원 회원은 ㉠덕성과 인격을 겸비한 자 ㉡유교사상을 신봉하는 자로서 서원의 회원이 되면 당회를 통해 소수서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며, ㉠본원의 원규 및 제규약의 준수 ㉡당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춘추향례 및 세알歲謁, 당회 참여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만일 서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주요 의결사항은 당회와 임원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먼저 당회는 본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소수서원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기당회는 춘추향사 21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당회는 필요 시 원장이 소집하며 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주요 의결사항은 ①임원의 선임 ②원규의 개정 ③사업계획의 승인 ④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⑥기타 중요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당회는 30인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구성으로 의결한다. 단 원규의 개정, 재산의 취득·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회의는 원장, 도감, 재유사, 감사로 구성한다. 정기 임원회는 춘추향사 때 개최하고 임시 임원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임원회의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요 의결사항은 ①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사업계

회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원규 개정에 관한 사항 ⑤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당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⑦당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기타 서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이 외에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된 각 위원회의 규칙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2) 전승과 지속

서원은 사립학교로 제향의 기능을 비롯해 교육의 기능이 있었다. 그 중 서원의 제향 기능은 오늘날까지도 전승·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교육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 그러나 서원 자체의 교육 기능은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서원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교육이 부활되고 있다. 유학의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선현들의 학문탐구와 전통생활을 체험하는 선비문화수련원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축계지의 서문에 잘 나타나는데, 교육이란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사당을 세워 덕이 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이니, 실로 교육은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소수서원에는 학전學田을 두어 유생들이 학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원에서 교육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 큰 요인은 자금의 부족 때문이었다. 점차 규율과 회계의 엄중함이 허물어지면서 재물이 낭비되었고, 이로 인한 서원 재정의 위태로움이 곧 교육의 위기로 닥쳐왔던 것이다.

- 서원을 세운 본 뜻은 오로지 선비를 양육하는 데에 있다. 실로 선비를 잘 기르지 못하면 서원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비록 물자가 고갈되었지만, 선비를 기르는 일 한 가지만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 …「중략」…이에 50석을 배정하여 선비를 기르는 경비로 삼는다. 반드시 추수 후에 이 수량을 달아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취용取用할 바탕으로 삼는다. 서원에 축적된 물자가 혹시 모자라는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이를 전용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전용한다면 마땅히 중벌로 다스린다.[28]
- 봄가을 향례 때 선비들에게 이바지하는 절차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데, 지금에 서원에 축적된 물자가 고갈되어 구차하게 구하는 폐단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로 미안한 일이다. 앞으로는 추수가 끝나자마자 40석을 말斗로 달아서 역시 특별히 보관하였다가 보태어 쓰도록 한다.[29]

물론 오늘날은 학교學校가 있어 서원의 교육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었지만, 서원만이 가능한 유교전통문화의 교육을 특성화시켜 그 교육 기능을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8 設院本意, 專在養士, 苟不養士, 是無院也. 今雖財力凋竭, 養士一款斷不可廢罷. 否時居齋, 雖不能倂復古規, 而冬夏間一番居齋一番文會, 猶可以稍效規例. 不負本意. 玆以五十石劃定, 爲養士之需. 必俟秋收後, 卽爲斗量此數, 藏之別庫, 以爲取用之資. 院儲雖或有不足之患, 切勿犯用(爲乎矣). 如或犯用, 則當用重罰事. (1975年 "院中完議")

29 春秋享禮時供士之節, 所係重大, 而今仍院儲之竭, 致有苟干之弊, 常爲未安. 自今以後, 則秋收後事, 卽爲斗量四十石, 亦爲別藏, 以爲補用之事.(1975年 "院中完議")

소수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은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곳으로써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일깨우고, 인류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고자 건립되었다. 전통문화의 우수한 점을 현대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을 근본으로 삼고, 선비정신을 가슴에 담은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 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선비문화수련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선비정신 육성, 인성교육, 예절교육, 전통문화교육, 심신수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예절교실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어린이 예절교실	유치부	인사예절, 언어예절, 기본예절, 전통문화체험
청소년 인성예절교실	초·중·고 학생	인사예절, 언어예절, 기본예절, 다도예절, 전통문화체험, 올바른 학교생활
청소년 예절캠프	초·중·고 학생	전통예절, 인성예절, 한문교육, 다도예절, 인성교육, 전통문화체험, 올바른 학교생활
어머니 인성예절교실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 자녀교육 방법, 기본예절
가족예절교실	가족단위	가족의 소중함, 역할 바꾸기 연극, 가족 간의 대화, 가정예절,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한문교실	일반	육서의 이해, 한문의 구조, 문법, 해석법, 대학, 중용, 논어, 명자
전통의례교실	일반	예절의 기본원리, 가정의례, 통과의례(관혼상제), 배례법
선비문화교실	일반	세시풍속, 전통문화 일반, 교양강좌, 선비정신

◎ 전통문화체험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주부과거제	주부	시, 서, 화 백일장, 전국 주부 참가, 축하연, 전통놀이, 전통공연
전통복식전	일반	의례복 전시, 선비복 전시, 평상복 전시, 복식 착용체험, 전통놀이 체험
과거시험재현	일반	조선시대 과거현장 체험, 시상식, 축하연

◎ 연수/위탁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유림지도자 연수	전국 유림	유림 자체 프로그램, 유림 자질향상, 단합대회
공무원 연수	공무원	자체프로그램, 기본예절, 전통예절, 심신수양, 공직자의 자세
직장인 연수	일반직장	자체프로그램, 기본예절, 전통예절, 심신수양, 직장예절
학생 위탁연수	초·중·고 학생	전통예절의 이해, 기본 예절 익히기, 심신수양법, 올바른 가치관, 인성교육
군인 위탁연수	군인 (장병, 장교)	전통예절, 다도, 인성교육, 올바른 국가관, 기본예절
대학생 전통문화 체험	대학생	전통예절, 다도, 인성교육, 올바른 국가관, 기본예절

◎ 특별체험교육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국제유교학술대회	세계의 유교학자	유교관련 세미나, 토론 및 논평, 한옥체험, 축하연
저소득층 자녀 체험교육	저소득층 초·중 학생 (학교 및 지자체 추천)	손님접대와 다도, 기본예절, 전통예절, 인성교육
외국인 체험교육	외국인	전통인사법, 한복 입는법, 전통놀이 체험, 기본예절
다문화가정 체험교육	다문화가정	가족의 호칭, 전통 인사법, 가정예절, 기본예절

이외에도 소수서원에서는 선비촌이라는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장을 열어 두었다. 농악, 다도, 전통혼례, 관례, 짚공예, 붓글씨,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공개행사와 강연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道德博問
安民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明宗實錄』

『經國大典』

『三峯集』

『竹溪志序』

『大韓禮典』

『禮記』

『國朝五禮儀』(법제처, 1982)

『太學志』(성균관, 1994)

『太常志』(보련각, 1974)

『春官通攷』(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6)

具永熙, 「書院의 成立背景에 對한 史的 考察」,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류 휘, 「書院 成立에 관한 考察」, 『安東史硏究』 제3권(1989)

金昌郁, 趙鍾仁, 「朝鮮 書院의 成立背景에 관한 一考 - 16 세기 초기서원을 중심으로 -」, 『중등교육연구』 제17권(1995)

張極奉, 「紹修書院의 敎育史的 意味에 관한 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金在康, 「白雲洞書院의 創建과 周世鵬의 敎學 精神」, 『安東漢文集』 제15권(1998)

최이돈, 「朝鮮時代 書院의 成立과 敎育活動 硏究」,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馬南柱, 「백운동서원의 설립배경 -주세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고영진, 『조선중기 예학사상사』(한길사, 1976)

최완기, 『한국의 서원』(대원사,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이선재, 『유교사상과 예의복』(아세아문화사, 1992)

지두환, 『조선전기 의례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집문당, 1997)

김봉렬, 『서원 건축』(대원사, 1998)

국립문화재연구소 『석전대제』(민속원, 1998)

유승국, 『한국의 유교』(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김호일, 『한국의 향교』(대원사, 2000)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예문서원, 2000)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사상의 숨결을 찾아서』(예문서원, 2001)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의 서원제사』(안동민속박물관, 2001)

이상해, 『서원』(열화당, 2002)

이성무, 『조선왕조사』(동방미디어, 2002)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연구』(일조각, 2002)

조준하, 『윤리도덕교본』(성해문화사, 2003)

영주시, 『紹修書院 講學堂 및 文成公廟 實測調査報告書』(2003)

김해영, 『조선초기제사전례연구』(집문당, 200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집문당, 2004)

성균관유도회,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성균관유도회, 2004)

사직대제보존회, 『국가의 사직대제』(전주이씨대동종약원, 2004)

오영교, 『조선 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혜안, 2004)

권오흥, 『유교와 석전』(성균관, 2004)

종묘제례보존회, 『종묘제례』(전주이씨대동종약원, 2004)

권오흥선생고희기념논총, 『석전학논총』(도서출판 파미르, 2005)

원재식, 『문묘석전의』(전통문화사, 2005)

이호일, 『조선의 서원』(가람기획, 2006)

이장열, 『무형문화재정책』(관동출판, 2006)

임학선, 『문묘일무의 이해』(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영남문헌연구소, 『소수서원지』(소수서원, 2007)

경상북도, 『慶北書院誌(개정판)』(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직대제』(민속원,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종묘대제』(민속원, 2008)

한국석전학회, 『문묘석전의 정립과 전망』(한국석전학회, 2008)

경상북도, 『慶北書院誌(개정판)』(2009)

석전교육원, 『석전대제의 역사와 체계분석』(석전교육원, 2009)

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경기도향교일람』(경기도지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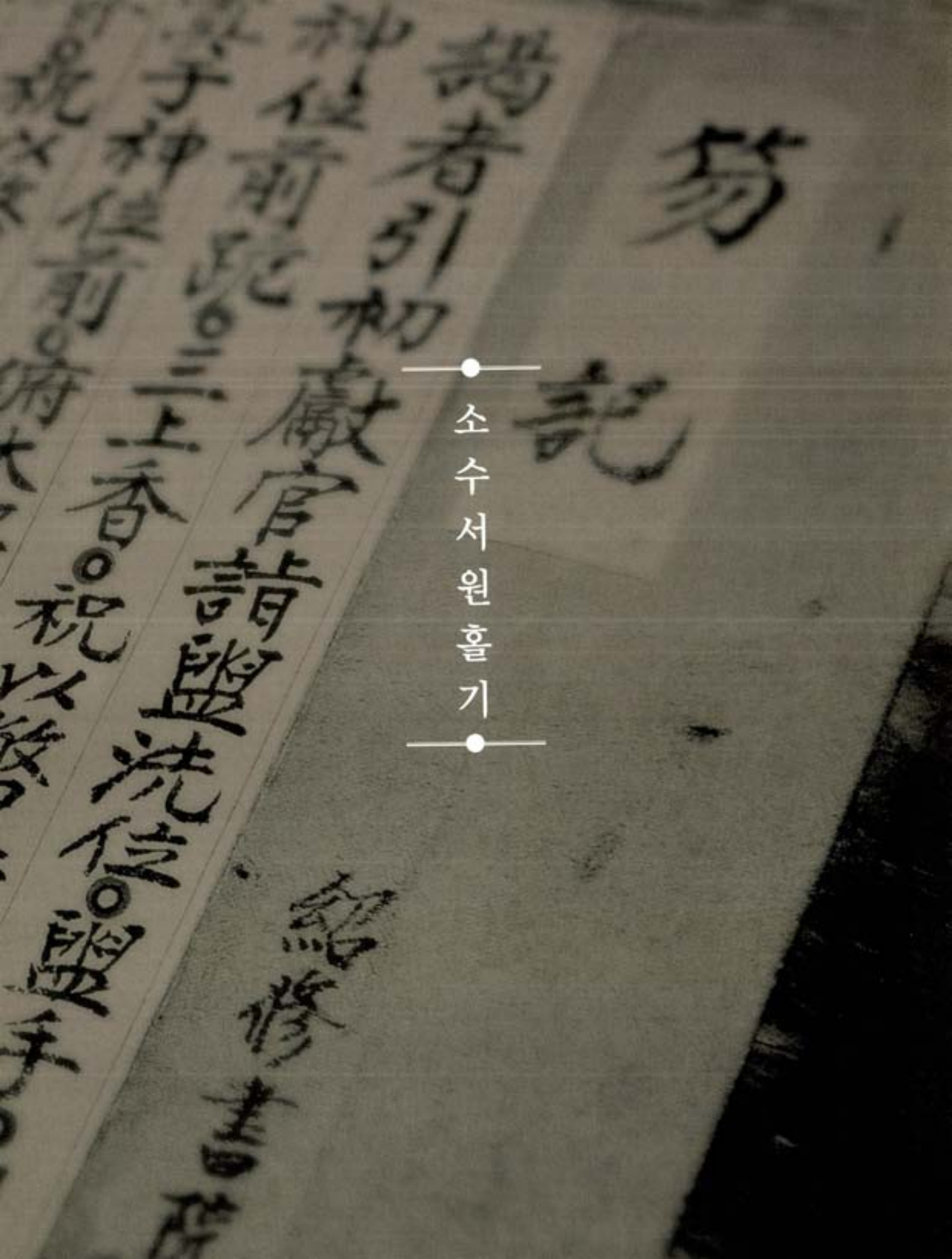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지 조경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향교석전(전주향교, 제주향교)』(2010)

김미영,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민속원, 2010)

獻官。獻文貞公神位前。獻官受幣帛奠
于神位前。跪。三上香。祝以幣帛奠
于神位前。俯伏興。
引啓復位。獻官。獻官受

소수서원 홀기



소수서원향례홀기(紹修書院享禮笏記)

- 諸執事先詣外位(제집사선예외위)
  모든 집사는 먼저 외위에 나가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 就外位(알자급찬인각인헌관 취외위)
  알자와 찬인은 각기 헌관을 외위로 인도하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 入就階間拜位(찬인인축급제집사 입취계간배위)
  찬인은 축관 및 모든 집사를 절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再拜(재배)
  두 번 절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贊引引祝及諸執事 詣盥洗位(찬인인축급제집사 예관세위)
  찬인은 축과 모든 집사를 손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盥手(관수)
  손을 씻으시오
- 各就位(각취위)
  각각 제자리에 나가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 入就階間拜位(알자급찬인각인헌관 입취계간배위)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절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再拜(재배)
  두 번 절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上香禮(상향례)

-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 예관세위)
  알자는 초헌관을 손 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盥手(관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文成公神位前(인예문성공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문성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祝以幣付受獻官(축이폐수헌관)
  축관은 폐(폐백)를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幣 奠于神位前(헌관수폐전우신위전)
  헌관은 폐(폐백)를 받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神位前(차예문정공신위전)
  (초헌관은) 다음 문정공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祝以幣付受獻官(축이폐수헌관)
  축관은 폐(폐백)를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幣 奠于神位前(헌관수폐 전우신위전)
  헌관은 폐(폐백)를 받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敬公神位前(차예문경공신위전)
  (초헌관은) 다음 문경공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祝以幣付受獻官(축이폐수헌관)
  축관은 폐(폐백)를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幣 奠于神位前(헌관수폐전우신위전)
  헌관은 폐(폐백)를 받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敏公神位前(차예문민공신위전)
  (초헌관은) 다음 문민공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리시오
- 祝以幣受獻官(축이폐수헌관)
  축관은 폐(폐백)를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幣 奠于神位前(헌관수폐전우신위전)
  헌관은 폐(폐백)를 받아 신위 앞에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初獻禮(초헌례)

- 謁者引初獻官 詣文成公尊所(알자인초헌관 예문성공준소)
  알자는 초헌관을 문성공의 준소 앞으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문성공의) 신위 앞에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少退跪(소퇴궤)
  약간 물러나서 꿇어앉으시오
- 讀祝(독축)
  (축관은) 축문을 읽으시오
- 樂正(악정)
  (악사는) 도동곡의 <초헌>란을 부르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 (알자는 초헌관을) 문정공의 준소 앞으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문정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 (알자는 초헌관을) 문경공의 준소 앞으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문경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敏公尊所(차예문민공준소)

  다음 (알자는 초헌관을) 문민공의 준소 앞으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알자는 초헌관을 문민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官 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 예관세위)

  찬인은 아헌관을 손 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盥手(관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찬인은 아헌관을 문성공의) 준소 앞으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아헌관을 문성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樂正(악정)

  (악사는) 도동곡의 <아헌>란을 부르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 (아헌관은) 문정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아헌관을 문정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 (아헌관은) 문경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아헌관을 문경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敏公尊所(차예문민공준소)

  다음 (아헌관은) 문민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아헌관을 문민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官 詣盥洗位(찬인인종헌관 예관세위)

  찬인은 종헌관을 손 씻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盥手(관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찬인은 종헌관을 문성공의) 준소 앞으로 인도하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종헌관을 문성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樂正(악정)

  (악사는) 도동곡의 <종헌>란을 부르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 (종헌관은) 문정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종헌관을 문정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 (종헌관은) 문경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아헌관을 문경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次詣文敏公尊所(차예문민공준소)

  다음 (종헌관은) 문민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引詣神位前(인예신위전)

  (찬인은 종헌관을 문민공의) 신위 앞으로 인도하시오

- 跪(궤)

  꿇어앉으시오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리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두 번 절하시오

飮福受胙(음복수조)

- 執事詣文成公尊所(집사예문성공준소)

  집사는 문성공의 준소 앞으로 나아가시오

- 以爵酌福酒(이작작복주)

  술잔에 복주를 뜨시오

- 祝進減神位前胙肉(축진감신위전조육)
  축관은 신위 앞으로 나아가 진설된 조육을 덜어내시오
- 謁者引初獻官詣飮福位(알자인초헌관예음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음복하는 자리로 인도하시오
- 西向跪(서향궤)
  (초헌관은)서쪽을 향하여 꿇어앉으시오
- 執事進獻官之左(집사진헌관지좌)
  집사는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시오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집사는) 술잔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飮卒爵(헌관음졸작)
  헌관은 제주잔을 들어 (술을) 다 마시시오
- 反爵(반작)
  (헌관은 집사에게)빈 잔을 돌려주시오
- 執事北向以胙授獻官(집사북향이조수헌관)
  집사는 북쪽을 향하여 헌관에게 조육을 주시오
- 獻官受胙(헌관수조)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 授執事(수집사)
  집사에게 주시오
- 俯伏興(부복흥)
  몸을 굽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獻官以下皆再拜(헌관이하개재배)
  헌관이하 모두 두 번 절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徹籩豆(철변두)

- 祝入徹籩豆(축입철변두)
  축관은 들어가 변두를 철거하시오
- 在位者皆再拜(재위자개재배)
  자리에 있는 이는(참례자는) 모두 두 번 절하시오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望瘞(망예)

- 謁者引初獻官 詣望瘞位(알자인초헌관 예망예위)
  알자는 초헌관을 망예의 자리로 인도하시오
- 北向立(북향립)
  북쪽을 향하여 서시오
- 祝取板降自西階(축취판강자서계)
  축관은 축판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시오
- 瘞坎(예감)
  (초헌관은)구덩이에 묻으시오
- 謁者進初獻官之左 告禮畢(알자진초헌관지좌고예필)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 예를 마쳤음을 고하시오
- 謁者及贊引各引獻官 以次出(알자급찬인각인헌관 이차출)
  알자와 찬인은 각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시오
- 祝及諸執事皆復位(축급제집사개복위)
  축관 및 모든 집사는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몸을 굽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시오
- 以次出(이차출)
  차례로 나가시오

신재선생홀기(愼齋先生笏記)

- 諸執事先就外位(제집사선취외위)
  모든 집사들이 먼저 외위에 나아감
- 謁者及贊引各引獻官 就外位(알자급찬인각인헌관 취외위)
  알자와 찬인이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외위에 나아감
- 贊引引祝及諸執事 入就拜位(찬인인축급제집사 입취배위)
  찬인이 축과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가 배위에 나아감
- 再拜(재배)
  재배함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上香·初獻禮
(상향·초헌례)

-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 예관세위)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인도하여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림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讀祝(독축)
  축문을 읽음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으로 문정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림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으로 문경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림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官 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 예관세위)
  찬인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인도하여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으로 문정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으로 문경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官 詣盥洗位(찬인인종헌관 예관세위)
  찬인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인도하여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으로 문정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으로 문경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飮福受胙(음복수조)

- 謁者引初獻官 詣飮福位(알자인초헌관 예음복위)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 자리에 나아감
- 西向跪(서향궤)
  서향하여 꿇어앉음
- 祝詣文成公神位前 取胙肉(축예문성공신위전 취조육)
  축이 문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제육을 떼어옴
- 詣獻官之左 東向跪(예헌관지좌 동향궤)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음
- 授獻官 獻官受胙授執事(수헌관 헌관수조수집사)
  헌관에게 드리면 헌관은 받아 집사에게 줌
- 執事以爵授獻官(집사이작수헌관)
  집사가 술잔을 헌관에게 드림

- 獻官卒爵(헌관졸작)
  헌관이 술을 다 마심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授獻官 獻官受胙授執事(수헌관 헌관수조수집사)
  헌관에게 드리면 헌관은 받아 집사에게 줌

徹籩豆(철변두)

- 祝撤籩豆(축철변두)
  축이 변두를 거둠
- 獻官以下皆再拜(헌관이하개재배)
  헌관 이하 모두 재배함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望瘞(망예)

- 謁者引初獻官 詣望瘞位(알자인초헌관 예망예위)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 자리로 나아감
- 北向立(북향립)
  북향하여 섬
- 祝取板 降自西階瘞坎(축취판 강자서계 예감)
  축이 축판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구덩이에 묻음
- 謁者引獻官出(알자인헌관출)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감
- 贊引以次引獻官出(찬인이차인헌관출)
  찬인이 차례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감
- 祝及諸執事降復位 再拜(축급제집사강복위 재배)
  축과 집사들이 자리로 내려가 재배함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 以次出(이차출)
  차례로 나감

- 諸執事先詣外位(제집사선예외위)

퇴계선생홀기(退溪先生笏記)

모든 집사들이 먼저 외위에 나아감

- 謁者及贊引各引獻官 就外位(알자급찬인각인헌관 취외위)
  알자와 찬인이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외위에 나아감
- 贊引引祝及諸執事 入就階間位(찬인인축급제집사 입취계간위)
  찬인이 축과 집사들을 인도하여 계단 사이 배위에 나아감
- 再拜(재배)
  재배함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 贊引引祝及諸執事 詣盥洗位(찬인인축급제집사 예관세위)
  찬인이 축과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各就位(각취위)
  각각 제자리에 나아감
- 謁者及贊引引獻官 入就階間位(알자급찬인인헌관 입취계간배위)
  알자가 헌관을 절하는 자리로 인도함
- 再拜(재배)
  재배함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上香禮(상향례)

-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알자인초헌관 예관세위)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引詣文成公神位前跪(인예문성공신위전궤)
  인도하여 문성공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貞公神位前跪(차예문정공신위전궤)
  다음으로 문정공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敬公神位前跪(차예문경공신위전궤)
  다음으로 문경공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三上香(삼상향)
  세 번 향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初獻禮(초헌례)

- 謁者引初獻官 文成公尊所(알자인초헌관 예문성공준소)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少退跪(부복흥소퇴궤)
  부복하고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음
- 讀祝(독축)
  축문을 읽음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으로 문정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으로 문경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行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官 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 예관세위)
  찬인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인도하여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으로 문정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으로 문경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跪(인예신위전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官 詣盥洗位(찬인인종헌관 예관세위)
  찬인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자리로 나아감
- 引詣文成公尊所(인예문성공준소)
  인도하여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 跪(인예신위전 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貞公尊所(차예문정공준소)
  다음으로 문정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 跪(인예신위전 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次詣文敬公尊所(차예문경공준소)
  다음으로 문경공 준소에 나아감
- 引詣神位前 跪(인예신위전 궤)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음
- 奠爵(전작)
  술잔을 올림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飮福受胙(음복수조)

- 執事詣文成公尊所(집사예문성공준소)
  집사가 문성공 준소에 나아감

- 以爵酌福酒(이작작복주)
  술잔에 음복주를 따름
- 又一人進 減神位前胙肉(우일인진 감신위전조육)
  또 한 사람이 나가 신위 앞 제육을 떼어옴
- 謁者引初獻官 詣飮福位 (알자인초헌관 예음복위)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자리에 나아감
- 西向跪(서향궤)
  서향하여 꿇어앉음
- 執事進獻官之左(집사진헌관지좌)
  집사가 헌관 왼쪽에 나아감
- 以爵授獻官(이작수헌관)
  술잔을 헌관에게 줌
- 獻官飮卒爵(헌관음졸작)
  헌관이 술을 다 마심
- 反爵(반작)
  술잔을 되돌려 줌
- 執事北向以胙授獻官(집사북향이조수헌관)
  집사가 북향하여 제육을 헌관에게 줌
- 獻官受胙授執事 (헌관수조 수집사)
  헌관이 제육을 받아 집사에게 줌
- 俯伏興(부복흥)
  부복하고 일어남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 再拜 獻官以下皆再拜(재배 헌관이하개재배)
  헌관이하 모두 재배함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徹籩豆(철변두)

- 祝入撤籩豆(축입철변두)
  축이 들어가 변두를 거둠
- 再拜 在位者皆再拜(재배 재위자개재배)
  참례한 자 모두 재배함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望瘞(망예)

- 謁者引初獻官 詣望瘞位(알자인초헌관 예망예위)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 자리로 나아감
- 北向立(북향립)
  북향하여 섬
- 祝取板 降自西階 瘞坎(축취판 강자서계 예감)
  축이 축판을 들고 서쪽계단으로 내려가 구덩이에 묻음
- 謁者及贊引各引獻官 以次出(알자급찬인각인헌관 이차출)
  알자와 찬인이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감
- 祝及諸執事皆復位 再拜(축급제집사개복위 재배)
  축과 집사들이 모두 자리로 돌아가 재배함
- 鞠躬, 拜, 興, 拜, 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국궁하고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폄
- 以次出(이차출)
  차례로 나감

성생홀기(省牲笏記)

- 謁者引獻官 詣省牲位(알자인헌관 예성생위)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희생을 살필 자리로 나아감
- 近南北向(근남북향)
  남쪽 가까이에서 북향함
- 祝位於牲西東向(축위어생서동향)
  축이 희생 서쪽에서 동향하여 섬
- 司牲位於牲東西向(사생위어생동서향)
  사생이 희생 동쪽에서 서향하여 섬
- 祝巡牲一匝(축순생일잡)
  축이 희생 주위로 한 바퀴 돌면서 살펴봄
- 東向舉手曰充(동향거수왈충)
  동향하여 손을 들고 '충'이라고 함('충(充)'은 '충실하다'는 뜻임)
- 退復位(퇴복위)
  물러나 자리로 돌아감
- 司牲少前舉手曰腯(사생소전거수왈돌)
  사생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고 '돌'이라고 함('돌(腯)'은 '살이 쪘다'는 뜻임)
- 退復位(퇴복위)
  물러나 자리로 돌아감
- 司牲牽牲詣廚(사생견생예주)
  사생이 희생을 끌고 주사로 나아감
- 授典祀官(수전사관)
  전사관에게 넘겨줌
- 謁者引初獻官 申視濯溉 (알자인초헌관 신시척개)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희생을 씻는 것을 살펴봄
- 禮畢(예필)
  예를 마침

Ⅲ

부록

1. 소수서원 원규
2. 도산서원 원규

紹修書院 院規(소수서원 원규)

◎ 소수서원 원규(주세붕)

- 一曰勤祀。二曰禮賢。三曰修宇。四曰備廩。五曰點書。
- 斯文統檢。有司監掌。
- 別擇業文信愼者一人。爲院長。又擇一人。爲貳。共主院事。
- 春秋大享。例卜季月上丁。上丁有故。改卜中丁。
- 備三獻官六執事。
- 致齋日。獻官點曬藏書。省視牆宇虧漏。會計米穀什物。受禧日。衆斯文共察之。
- 邑宰子弟。不得留帶貽弊。
- 邑宰子弟。不得擅便書册。
- 禁射候遊宴。
- 復守直四家。人不得役。官不得奪。
- 凡入院之士。司馬則如入大學。其次初試入格者。雖非入格。其一心向學有操行而願入者。有司稟于斯文而迎之。
- 別置入院錄。凡入院之士。必自錄姓名。且記其來寓年月。

◎ 완의(完議) / 경진년(庚辰年, 1700) 3월 춘향사

- 居齋一遵愼齋約條。勿論他本官。無過十員。而先計入格次計年當事。
- 供士之規。入格則亦依舊規。而如過額數。則計其日子先後以爲遞代事。
- 居齋儒生他官則不入格各居院錄之人勿許來捿。而本府則鄕外子弟亦不許供饋事。
- 童蒙則勿論他本官。裹粮來捿事。
- 本院取士。既以入格爲限。則春秋享祀及凡干聚會。一遵舊規出文之外。切不得混參事。
- 本院密邇府中。故出入官府之員。卒以本所爲宿食之所。不但耗費公廩。揆以事體殊甚未妥。此後則切勿出入。而如有如前濫雜之弊。則重治院僕。勿許計減事。
- 雖是入格儒生。而亦有無事入來留連累日。則亦勿許供饋事。
- 書院既是士林公共之重地。故愼齋之立條。曾無先賢子孫則別樣從事之規。則先賢子孫之未入格者。固無異同於凡儒。亦勿許公廩事。

◎ 소수서원 입의(紹修書院立議) / 갑신년(甲申年) 5월

- 本所大小任。必以文官及生進入格中。有士望者擇定。而勿而僥倖入格之人。拘顔混薦事。
- 居齋儒生。定數常供之外。勿許數外供饋事。
- 本所實穀。或稱貸下。或稱便利。而任人循私出給者。則從重論罰事。
- 每年歲末會計。必遵故規。而任人或有濫用之弊。則一一論罰(爲旅)。每月朔亦爲會計用下之數。俾無不察視失之弊事。
- 院結還上。境內儒生如有干與取用者。則從重論罰事。

- 或往來府中而徵出院糧. 或因私會而責出院供者. 其習不可不禁. 此後. 復踵前習. 如有責徵之弊. 則摘出論罰以防後弊事.
- 近來院儲板蕩. 勢難如前供事.非時居齋以費物力者. 則勿論他本官. 一切防塞.
- 境內儒生. 或因私事無故留連者. 勿許供饋(爲乎矣). 猶且數數往來責令供饋者. 從重罰事.
- 凡員入院者. 勿論任人之有無. 或乘空院之時. 必以飮食之節恣意作弊. 徵出不時之酒食者. 別樣論罰事.
- 雖是任員. 或無故恒留. 且私費公穀者. 一一施罰事.
- 境內凡儒. 如有不協於任人. 則或杖下僕. 或投單子. 驅逐作祟. 若無顧忌. 如此風習. 極爲不美. 此後更爲此弊. 則爲先施以極罰. 勿許科時告目事.
- 本官例兼院長. 本院如有大段之事.則必告官稟處事.
- 如是立條之後. 或有不遵. 又踵前習者. 告官處置事.